

‘롯데쇼핑홀딩스’ 비자금 창구 의혹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계열사 해외투자 통로 역할... 검찰, 중국사업서 수천억 횡령·배임 정황 수사

“中·베트남 등 아시아 투자 롯데쇼핑홀딩스 통해 전달 이후 자금흐름 파악 안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국 사업 자금 통로를 담당했던 롯데쇼핑홀딩스를 비자금의 핵심 창구로 주목하고 있다. 롯데쇼핑홀딩스는 2011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을 시작하면서 중국 사업 확장의 물꼬를 튼 창구 기업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 부실규모가 약 4조 원대로 추정되면서 롯데쇼핑홀딩스를 중심으로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롯데 계열사 중 유통을 비롯해 식음료·화학·물류분야 등에 걸쳐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열사 투자금이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 사업에 투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가 계열사 자금을 롯데쇼핑홀딩스를 거쳐 중국에 투입한 뒤 중국 사업의 손실을 과다하게 책정,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롯데쇼핑이 홍콩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롯데쇼핑홀딩스는 앞서 신 회장의 인수합병(M&A) 경영에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14년 약 3500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보이면서 신 회장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불거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역시 주요 배경으로 롯데쇼핑홀딩스의 부실을 초래한 중국 진출사업이 한몫했다.

신 회장이 지금까지 롯데쇼핑홀딩스에 출자한 자금만 1조 원에 달한다. 2009년 중국 내 65개 마트를 가진 타임즈를 인수할 당시 7400억 원을 출자한 이후 최근 3년 동안 약 3000억 원을 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신동빈(가운데) 롯데그룹 회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에탄크래커 및 에틸렌글리콜 합작사업’ 기공식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레이크찰스(美 루이지애나주) = 연합뉴스

가로 출자했다. 그러나 중국 내 내수부진으로 롯데쇼핑홀딩스의 장부가 추락이 시작됐다. 2012년 1조547억 원에 이르던 롯데쇼핑홀딩스 장부가 2013년 9217억 원, 2014년 7201억 원으로 2년 만에 3345억 원이 빠졌다. 결국 롯데쇼핑의 손실차손으로 이어졌다.

롯데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투자금은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한 데다 건설,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등 한국 계열사에서 끌어들이는 자금으로 추진됐다”며 “이 자금들이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전달됐는데 이후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2010년 중국 흡소업 업체 3위 기업인 럭피아이를 인수할 당시 롯데쇼핑 등 유통 계열사들이 출자하는 형태로 페이퍼 컴퍼니인 LHSC를 설립해 자본 63.2%를 약 1500억 원에 사들였다. ▶관련기사 acw@

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연내상장 노력”

심려겨쳐 좌충·수사 적극 협조
롯데 주총 끝나면 곧바로 귀국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현지시간) “국내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신 회장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엑시슬사와의 에탄크래커 및 에틸렌글리콜 합작사업 기공식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모든 회사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이 검찰 수사 이후 언론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honey@

신 회장은 또 호텔롯데 상장 철회와 관련해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장은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꼭 지켜겠다”고 강조했다. 호텔롯데는 13일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빨리 수사가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일본 롯데호텔 주총에 대해 “주총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아직 일본 롯데호텔의 주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께 주총이 끝난 직후 곧바로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oney@

중국A주, MSCI 편입 불발

“시장 접근성 미흡·QFII 제도 개선도 필요”... 3년째 유보

한국도 ‘선진지수 후보’ 못올라

중국 본토 A주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형시장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MSCI는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 A주의 편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2면

MSCI는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A주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뚜렷하게 개선하는 조치들을 도입했다”며 “여기에는 실질적 소유권과 관련한 이슈 해소, 투자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던 거래 중단 규제 강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레미 브리앙 MSCI 글로벌 리서치 대표는 “중국 당국은 A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국제 기준에 가깝게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줬다”며 중국 당국의 개선 노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남아 있는 접근성 이슈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모멘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 기관투자자들은 중국 A주가 MSCI 신형시장지수에 편입되기 전에 접근성에 대한 뚜렷한 개선이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신형지수 지수〉

중국A주, MSCI 편입 불발

“시장 접근성 미흡·QFII 제도 개선도 필요”... 3년째 유보

지적했다. 그러면서 “MSCI는 최근 발표된 정책적 변화가 시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할 것”이라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MSCI는 A주 편입을 유보한 이유로 “투자자 대부분은 QFII 내 배분과 자본유동에 관련된 제한이 개선돼야 하며 새로운 규정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보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QFII의 월 송금 한도를 20%로 제한한 규정이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며 “이는 뮤추얼펀드와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흐름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SCI는 2013년 중국 A주를 신형시장지수 예비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나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편입을 유보시켰다.

한편 한국도 MSCI 선진지수 후보국 지위 획득이 불발됐다. 한국은 2014년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할대당국에서 제외된 이후 다시 복귀를 노렸다. MSCI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이 내년까지 발효되기 어렵고 원화 환전성 부족에 따른 투자제한도 여전히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관련기사 baehj94@



오주현 매버릭 대표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 IR 행사에서 올라이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청

“기획 참신한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나” 美투자사, 한국 스타트업에 높은 관심

국내 유망 스타트업 15개 업체
실리콘밸리서 기업설명회 진행
중기청, 현지 투자자 미팅 주선

“10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한 것은 드문 사례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궁금하다.” (신 시바라 SAP 부사장)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드러피어 대학 ‘히어로 시티(Hero City)’에서는 13일(현지시간)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현지 투자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가 펼쳐졌다. 젊은 스타트업들은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IR에 전투적으로 임했다. 유창한 영어로 회사의 강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자, 현지 투자사들도 흥미롭다는 듯 종종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 스타트업들을 긴장케 했다.

이날 IR에 나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은 15개사. 이들은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벤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자신들을 마케팅했다. 세계 첫 클라우드 기반 영상합성엔진 플랫폼을 개발한 매버릭은 이날 행사에서 투자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모바일 비디오에 영상 애니메이션, 효과 합성 등을 제공하는 차별된 플

랫폼인 데다, 10대 미국인으로 타겟을 잡은 사업 모델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오주현 매버릭 대표는 기자에게 “미국에서 10대 그룹의 호응을 받아 최근 200만 유저를 확보했다”며 “실리콘밸리, LA에 진출해 미국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IR 현장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100여 명의 현지 투자자들과 그룹별 미팅을 진행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월블 스탠리치 앤드 라이스(WCSR)의 스티브 클린톤 변호사는 “기술 수준이 높고 발표 내용도 좋았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참여 스타트업 중 3-4곳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탐티어 캐피탈 파트너스(TTCP) 에릭 우 수석은 “한국 기업의 수준이 2-3년 전보다 매우 발전했다”고 말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벤처투자자들이 투자 기회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장”이라고 자신했다.

샌프란시스코(美 캘리포니아주) = 김경우 기자 thec98@

“데이터 충전, 환불 안됩니다” KT의 꼼수

남은 데이터 있어도 충전분부터 차감 소비자 불만... SKT·LG+는 잔여분 우선 소진

의정부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잔여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8800원을 지불하고 500MB를 충전했다. 그러나 이를 후 충전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KT가 운영하는 데이터 충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잔여 데이터와 상관없이 충전 데이터를 먼저 차감, 환불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KT 데이터 충전상품 환불 거부와 관련한 피해 사례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건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 KT 데이터 충전상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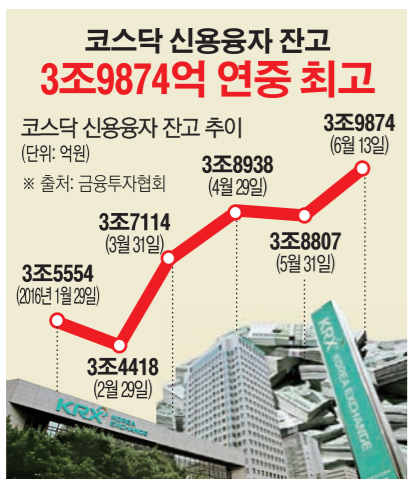
문제가 된 KT의 데이터 충전상품은 ‘LTE 데이터 충전’으로, 데이터 차감 순서가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이 상품은 충전이 완료되면 잔여 데이터가 있다면 새로 충전한 데이터부터 먼저 사용한다. 소비자들은 충전분을 사용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데이터 충전상품 특성을 이용, 현실적으로 환불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를 호소한 한 소비자는 “월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 데이터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잔여 데이터를 두고 굳이 충전한 데이터부터 차감하는 것은 환불을 막으려는 KT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충전상품은 KT와 달리 잔여 데이터가 먼저 소진된 후, 충전 데이터가 소멸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잔여 데이터가 소진된 뒤 충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품을 운영했지만, 충전한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도 안 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운영방식이 다른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nova@

데이터 뉴스 Data News



‘빛내 코스닥 투자’ 울들어 5000억 ↑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코스닥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스닥시장 신용용자 잔고는 3조9874억 원으로 집계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보다 5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코스닥시장의 과열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7월 31일(4조143억 원)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금액이다. ▶관련기사 euna@

이쁜 집 고운 집 ▶17
지중해풍 저택 ‘해오름터’

퍼스트클래스 스토리 ▶10
닥터 브로너스

우리회사 최고 시공물 ▶18
대림 ‘이순신대교’

김영상 사장 ▶8 정용진 부회장 ▶12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MSCI의 '희망고문'... '위안화 국제화' 中 금융대국 야망 제동

中 A주, 신흥국지수 편입 또 무산

중국증시 A주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키우고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려던 중국 정부의 야망이 타격을 받게 됐다. MSCI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국가 리뷰에서 중국 A주의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 지적사항 개선 노력에도 “개혁 성과 있었지만 더 지켜보겠다” 전문가 “중증시 하락세 돌아설 것” “선강통이 불발 충격 상쇄” 시각도

중국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MSCI 편입에 공을 들였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MSCI의 결정은 충격적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상장사 거래 중단과 주식 실질소유권 불인정 문제 등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골드만삭스가 MSCI 편입 가능성을 이전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등 기대를 부풀렸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인스티튜트의 폴 크리스토퍼 글로벌 시장전략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MSCI 결정은 중국이 공매도 금지와 거래 중단, 정부 자금을 이용한 주식 매입 등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폐쇄된 신흥시장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혁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MSCI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증시가 지난해 여름과 올해 초 혼란을 겪고 나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MSCI 편입이라는 호재를 기다렸던 투자자들도 맥이 빠지게 됐다. MSCI 결정 의미는 7주 달러(약 8253조 원)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증시인 중국 A주 시장이 여전히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A주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표시 주식으로 내국인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갖춘 외국인만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MSCI 신흥시장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HSBC홀딩스는 A주가 이 지수에 포함되면 내년까지 총 200억~3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근 중국과 홍콩증시가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날 결정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해에도 MSCI가 편입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중국증시가 하락 국면에 돌입해 상하이종합지수가 수주일 만에 40% 폭락해 시가총액이 약 6000억 달러 증발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

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이지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약 20%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 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선강통 시행이 MSCI 편입 불발 충격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시장은 오는 7월 1일 홍콩 증권반환기념일에 맞춰 선강통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스텐앤영(EY)의 케이시 피그선 아시아태평양 파이낸셜서비스 파트너는 “MSCI의 또 다른 거절은 위안화 국제화와 더불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정부를 실망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선강통 시행,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를 연결하는 기존 후강통 쿼터 확대 등 무기가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국도 선진국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불발

MSCI '원화 환전성 부족' 지적 '역외 원화시장' 개설 문제 발목

금융위, MSCI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 “단기실패 연연하지 않겠다... 노력 지속”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좌절됐다.

MSCI는 15일(한국시간) 오전 발표한 연례 국가 리뷰에서 내년까지 한국이 관찰 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SCI 측은 한국을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방안들이 내년까지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금융상품 개발에 관한 한국거래소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제한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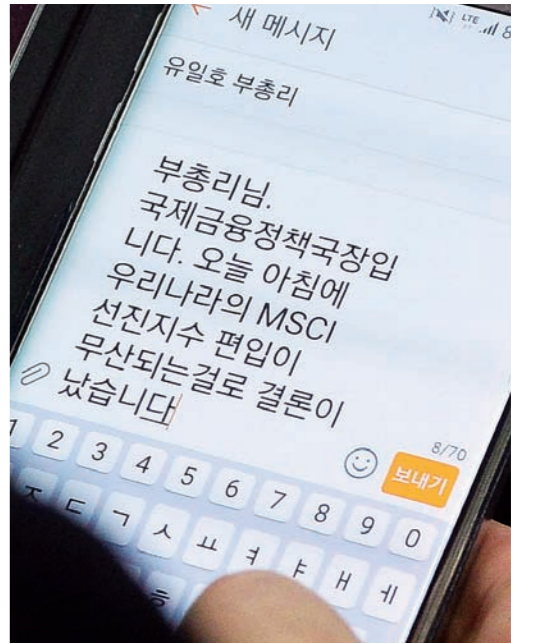
특히 원화 환전성 부족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난색을 보인 ‘24시간 환전 가능 역외 원화시장’ 개설 문제를 또다시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파이낸셜타임스특약스채인지(FITSE) 등 다른 지수산출 기관과 다르게 MSCI가 다소 과도한 선결과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야겠지만 MSCI가 요구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SCI는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23개국) △신흥시장(23개국) △프런티어시장(32개국)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까지 한 하더라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으나 현재는 신흥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왔다.

이에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주요 걸림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MSCI 정기 지수 조정 결과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돌로 지적된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24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주식·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키로 하는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차례로 내놓았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된 이날 역시 정부는 MSCI의 정기 지수 조정 결과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편입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단기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MSCI 지수는

세계 증시 시가총액 80% 반영... 글로벌 주식투자 벤치마크

MSCI 지수는 미국 지수 산출 업체인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이 산출·발표하는 주가지수를 총칭하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특약스채인지(FITSE) 지수와 함께 세계증시를 가능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MSCI 지수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등 지역 및 국가별, 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지수가 있으며 지역·국가·산업 등의 퍼포먼스를 비교하기 위해 수시로 수천 개의 지수가 산출되고 있다. 이 자료

는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외에 신흥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지수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MSCI 지수는 글로벌 증권 투자자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세계 기관투자자의 약 90% 이상이 글로벌 주식 투자의 벤치마크로 채용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23개국이 포함되고, 신흥

국 시장에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대만 등 23개국(독립시장 지수 제외)이 들어가 있다.

MSCI는 매년 2, 5, 8, 11월 네 차례 지수의 정기 변경을 시행하고, 해당 월 중반에 정기변경 발표를 하고 월말에 실제 지수를 변경한다. MSCI는 또한 매년 6월 시장분류 심사(Market Classification Review)를 한다. MSCI 지수에 포함되는 비중이 커질수록 해외 자금이 해당국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김치 중국수출을 지원합니다

세계김치연구소(소장 박원수)·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김순자)는 한-중 FTA 체결 2년을 맞아 대중국 김치수출 지원을 위해 6월20일~22일 중국 베이징시 열리는 '2016중국국제식품안전전람회 및 혁신기술전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합니다.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한민국김치협회는 한국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제조업체의 김치수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북부 및 서부내륙지역 시장개척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중국국제식품안전전람회 한국관 운영

2016.6.20~22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 8호관

전시품목 한국산 김치

참가업체 (주)한성식품, 품미식품(주), (주)대일, (유)아생초

특별행사 한중식품문화교류회(김치세미나, 비즈니스상담회, 김치담그기 시연·체험)

부대행사 김치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웨프경연대회, 퓨전국악 공연



(주)한성식품
www.hs-kimchi.co.kr



품미식품(주)
www.kimchicenter.com



(주)대일
www.daelfood.kr



(유)아생초
www.asahan.kr

주최  세계김치연구소
World Institute of Kimchi

 大韓民國 김치協會
Kimchi Association of Korea

주관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www.ce.cn

‘형제싸움’ 이슈된 中사업... “4조 손실에 비자금 숨어있다”

檢, 롯데쇼핑홀딩스 정조준

롯데그룹의 4조원대 대규모 중국 사업 투자 손실이 비자금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동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역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확보한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회계장부에서 중국 사업 비밀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과 롯데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누적 손실 규모가 약 4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업계에선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누적 적자가 약 1조원대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도 회계장부를 통해 파악된 손실 규모가 검찰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흐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무리한 중국 사업 확장 그늘에 숨겨진 의혹 = 신동진 회장의 객관적인 경영 평가 대상이었던 롯데쇼핑 중국 비즈니스가 비자금 수사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리한 사업확장 저편에 대규모 배임과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리더십과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중국에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MB정부 시절인 2008년 홍콩에 롯데쇼핑홀딩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 투자에 나섰다. 이듬해 2009년 중국에 65개 마트를 보유한 타임스를 인수했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쇼핑을 통해 롯데쇼핑홀딩스로 약 74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단행했고, 이 출자금을 바탕으로 중국 내 마트 기업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롯데쇼핑, 롯데미도파 등 유통 계열사를

2010년 中 ‘럭키파이’ 수상한 M&A
인수과정 배임 혐의·비자금 조성 초점

신동진 회장 취임후 회사채 7조 발행
40%가 中·베트남으로...무리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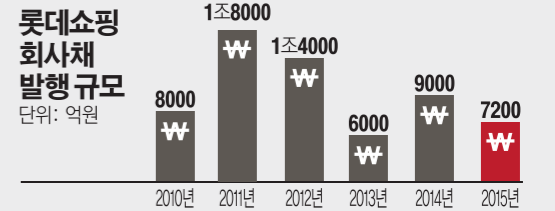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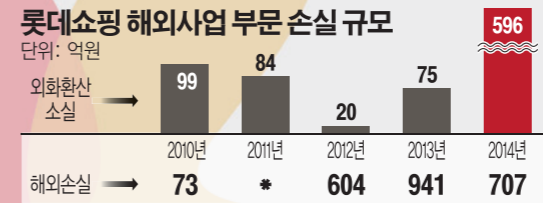
롯데쇼핑 중국법인 상당수가 자본잠식
주당장부부가가치 ‘-4만3371원’ 최악

과 출자 형태로 중국 럭키파이 지분 63.2%를 약 1500억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쇼핑의 럭키파이 인수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롯데의 중국 사업 손실이 비자금 조성고 직결됐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1년부터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이었던 2014년까지 롯데쇼핑의 홍콩 법인인 롯데쇼핑홀딩스를 중심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들의 적자 규모는 실제 장부가로 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해외법인들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홀딩스의 경우 2014년 한 해 약 3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쇼핑 중국법인 상당수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텐진롯데마트법인(Qingdao LOTTE Mart Commercial)의 경우 최근 2년간 약 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자본금 상당수가 잠식됐다.

◇롯데쇼핑 중국 시장가치 ‘마이너스’... 비자금 창구 전락 = 신 회장의 중국 비즈니스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주당장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10년 19만7694



롯데쇼핑,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적자 규모
단위: 억 원, *는 흑자

기업명	적자		부채		자본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롯데쇼핑홀딩스(홍콩)	120억	3439억	2657억	4406억	9817억	7385억
LOTTE MART COMPANY LIMITED(중국)	344억	221억	1869억	1617억	(-)78억	16억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중국)	650억	431억	1564억	1751억	(-)948억	517억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중국)	597억	1417억	6817억	6920억	1619억	20억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홍콩)	21억	60억	1412억	2090억	2192억	2013억
Lotte Properties (Chengdu) Limited(중국)	28억	17억	64억	58억	3496억	3973억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베트남)	32억	74억	2043억	3154억	731억	673억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317억	14억*	2000만	2200만	2383억	3330억
PT. LOTTE SHOPPING INDONESIA(인니)	145억*	102억*	1215억	1579억	989억	1119억
PT. LOTTE MART INDONESIA(인니)	224억	954억	1410억	1568억	271억	182억

*자료: 롯데쇼핑 감사 및 사업보고서

만원에서 2011년 6만8359원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4만3371원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롯데쇼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영지표 중 하나인 ‘시장 부가가치 증가율’도 지난 2010년 234.39%에서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제 시장에서 롯데쇼핑의 가치가 적자상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된 자본을 빼고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가를

보여주는 경영지표인 ‘경제적 부가가치(EVA)’도 2010년 1.5%에서 지난해 -65.36%로 추락했다.

롯데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법인이 38개에 달한다”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해 사업보고서에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은 법인들의 적자 규모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2011년 신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 동안 회사채 발행으로 약 7조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롯데그룹 전체 회사채 발행금액 중 롯데쇼핑이 발행한 회사채 비중은 40%에 달한다. 롯데쇼핑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약 1조9000억 원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로, 회사로 끌어들이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지역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10여 곳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4일 서울 신대방동 롯데케미칼 본사에서 수사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운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 비자금 수사 급피치

‘신동진의 브레인’ 3인방 이르면 내주 소환

〈이인원·황각규·소진세〉

소진세 사장 귀국 맞춰 함께 불러들일수도
신적호·신동진 300억 정채 관련 입 주목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14일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발빠르게 전개되면서 이른바 ‘신동진의 두뇌’인 가신그룹 3인방인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대외협력담당장(사장) 등이 이르면 내주 소환될 예정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민)는 이 부회장과 황 사장, 소 사장 등 롯데그룹의 심장부 격인 정책본부의 핵심 관계자를 내주 초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휴일인 12일 곧바로 신적호 총괄회장과 신동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임원인 이인원 전무, 류제돈 전무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룹 차원의 전면적 압수수색을 벌인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명목상 실무급 임원이지만 총수 일가의 진본 관계자 역할 등을 보면 가신그룹에 버금가는 무게를 지닌다.

롯데호텔 33층에 있는 신 총괄회장 비서실 내 비밀공간의 존재와 신적호·신동진 부자가 계열사에서 매년 300억원의 의심스러운 자금을 받아왔다는 진술도 이들의 입에서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총수 일가의 수상한 자금 추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원 정책본부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담당장

이 부회장은 지난 2011년 신 회장에 이어 정책본부장에 오른 인물로, 누구보다 그룹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소 사장은 1977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코리아세븐 대표, 롯데슈퍼 대표 등을 거쳤다. 황 사장은 신 회장의 복심이다.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에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호텔롯데 상장 등과 관련한 대소사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다만 3인방 중 소 사장의 경우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신 회장을 수행하고 있어 당장의 소환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소 사장의 귀국과 함께 3인방의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검찰의 이례적인 고강도 수사에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른바 ‘신동진의 남자’ 3인방이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오너일가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호반, 또 하나의 주거 브랜드

주거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신개념 복합주거단지

써밋플레이스

SUMMIT PLACE

2014년~2015년 상반기 주택공급실적 1위 - 일반분양 [주택도시보증공사 AAA등급(최고등급)]

시흥 은계 [북·1블록]

전용 84A/B, 101A/B, 119㎡ 오피스텔 35㎡
1,133세대
1600-5782
6월 10일 GRAND OPEN

광주

전용 84㎡
246세대
062)383-1000
6월 중 OPEN 예정

미사강변 [C2블록]

전용 99A/B/C, 147, 149, 154㎡
846세대
1566-0311
6월 OPEN 예정

시흥 배곧 [C1/C2블록]

전용 84A/B/C, 156, 159, 172㎡
1,795세대
1566-0220
7월 OPEN 예정

※본 광고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광고에 표시된 분양량 및 규모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반건설

민간사업 수입보장에 혈세 5282억 썼다

(지난해)

도로·교량 등 건설후 수익 안날 경우 정부가 부족분만큼 보전
건설투자 많은 국토부 3690억... 부산시 782억·해수부 60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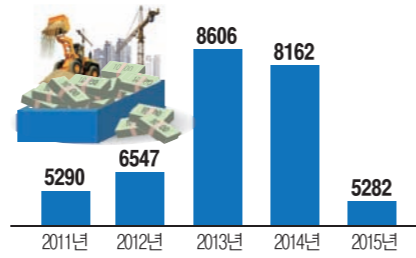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도로나 교량 등을 건설할 때 초기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족분만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15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MRG로 지급한 액수가 5282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1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된 총액 5647억7000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MRG를 지급한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가 36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건설투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민자도로가 많은 부산광역시가 782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해양플랜트사업이 많은 해양수산부가 60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TO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부족한 정부 예산 대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단위: 억원)



정부는 당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MRG제도를 BTO에 적용했다.

하지만 BTO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급증하자 2009년 MRG를 폐지했다. 다만 폐지 이전에 MRG제도가 적용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익을 계속 보장해 주고 있다.

MRG로 운영되면서 다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비교해 요금이 2.6배 높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큰 일산~퇴계원 노선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반발로 법정에 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 등으로 세분화해 이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과거에 체결한 사업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정부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good@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찾은 유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로구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속 인큐베이팅센터에서 열린 제7차 창조경제 민간협의회에 참석하며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설명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내 30대 그룹 절반 10년내 사라질 수 있다” 무역협회 CEO 강연

향후 10년 내 국내 30대 그룹 중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 최윤식 원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미국 뉴욕주립대의 글로벌 캠퍼스로 2012년 인천 송도에 개교했다.

최 원장은 “2016~2025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2016~2018년 사이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10~15년 이내에 30대 그룹 중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20년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 속에서 3번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아시아 대위기, 부를 둘러싼 미래산업 전쟁 속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소득별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20대 국회선 가능할까

野 토론회 열고 입법안 마련

20대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건보료 제도는 불합리한 부과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근본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개편안 마련 작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 3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차원의 총선 공약에 개편안 마련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도 국민 65%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 기준을 비롯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 폐지 방안과 관련, 세부사안에서 견해를 좁히기 위해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입법안 마련을 예고하는 등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기존의 8개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안을 마련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들어하

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더민주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더민주의) 큰 방향은 옳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역시 건보료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민주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온건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윤필호·이광호 기자 beetlebum@

주형환·CEO 간담회 취소 왜

(산업부 장관)

신산업 투자 방안 논의 예정
검찰 롯데 수사 시작되며 연기
수출·투자 등 경제회복 발목?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형환 장관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돌연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갑작스레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가운데 공식 행사를 연기해 최근 ‘사정정국’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자칫 롯데에 이어 다른 그룹으로까지 검찰의 대거 압수수색이 확산될 경우 민간이 총력전에 나선 수출과 투자 확대 등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신산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대 그룹 CE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사 이틀 전인 13일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 산업부 측이 이날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연찮게 그룹 회장 주재의 전략보고회의 일정 겹치는 등 그룹 3~4곳이 내부 사정 등으로 CEO들의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이 예정됐던 10대 그룹은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포스코·GS·한화·현대

올해 30대그룹 투자 계획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설투자	R&D투자	총 투자계획
90.9조원	31.8조원	122.7조원
(전년 대비 5.2% 증가)		

5대 신산업 민간(81개 기업) 투자 계획(~20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업(프로젝트 수)	투자 규모
에너지신산업(42개)	23조8000억원
신소재(9개)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1조4000억원
바이오헬스(24개)	2조6000억원
ICT 제조융합(32개)	14조2000억원

중공업·한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산업 분야 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산업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에 나서겠다고 총 81개 기업이 에너지신산업·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3년간 44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주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10대 그룹 CEO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고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도움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청년실업률 9.7% ‘5월 역대 최고’

취업자수 두달째 20만명대
고용률은 61.0%로 0.1%p↑

경기가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면서 고용시장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반짝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4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대로 추락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 5월 취업자수는 26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25만2000명)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가 2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4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61.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5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달(9.3%)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식 기간 1주일부터 4주일로 바꾼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0.8%를 나타냈다.

취업난이 심화되자 취업 시도를 포기하는 잠재적 실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셈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현대경제 “비자발적 비정규직·니트족 포함을” 통계청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언센스” 반박

청년 체감실업률 공방

통계청과 민간 경제연구소가 청년 ‘체감 실업률’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14일 ‘청년 체감 실업률’이 34.2%에 이른다며 현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자실을 직접 찾아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보조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청장은 통계청 고용 지표는 국제노동기구(ILLO)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데, 이를 도외시키고 성격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확대·혼합해 ‘체감 실업률’로 작성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8.0%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를 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임금, 공적연금, 고용보험, 교육훈련 등 근로 여건이 자발적 정규직에 턱없이 열악한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업자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오늘의 법안

김동철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기업 임원의 과도한 보수 지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성직자에도 책임은커녕 수십억 원을 챙겨가는 대기업 임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임원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보수체계 정립 근거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원의 보수에 상여금을 비롯한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적자에도 꼬박 챙겨가는 상장사 ‘임원 보수’ 환수 추진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개되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인 5억 원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2018년부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나 경영부실의 책임변위에 상

응하는 보수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시행령으로 규정)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임원의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이상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규정했다. 현재는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해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보수공개도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극심한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은 전직 대표에게 2년간 보수로 퇴직금을 포함해 74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김익중 기자 zerg@

블랙시트 우려에... 금값 꿈들



블랙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안전자산 매수세가 확산함에 따라 국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값은 온스당 1286.90 달러로 직전 거래일 대비 0.86% 상승했다. 4거래일째 상승세가 유지됐다. 14일 오후 서울 중로구 모동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 등을 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말 바꾼 검찰 증인... 정준양에 유리한 증언

(포스코 전 회장)

포스코, 성진지오텍 인수 관여한 실무진 진술 뒤집고 법정서 "시너지 내려 서둘러"

포스코 그룹 임원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고 정준양(67) 전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임원은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여했던 실무진 중 한 명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전 성장투자부 문장 윤모(64)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포스코건설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에너지와 E&C를 키우려고 한 포스코의 '비전 2018'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유리하게 인수합병(M&A)을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에 나온 윤씨는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M&A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고, 당시 계약은 이사회 승인 조건부였기 때문에 이사회 허가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성진지오텍 인수를 서둘러 추진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진지오텍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전도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착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방통심의위원회, 음란 방송 BJ 15명 고발

수위높은 인터넷방송사 1곳은 폐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방송자키(BJ) 15명에 대해 '이용해지(계정폐쇄)' 조치를, 인터넷방송 사이트 1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음란 인터넷방송은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발됐다.

이후 방심위는 3개의 사이트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했으며, 어떤 방송은 남성

게스트와 성행위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문제의 BJ들은 평소 성인용 대상으로 섹시 댄스 방송 등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으면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수위 높은 음란방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0여 명이 넘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해 음란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 폐쇄 조치됐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존 리 옥시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존 리(사진·48·현 구글코리아 대표) 옥시레킷벤커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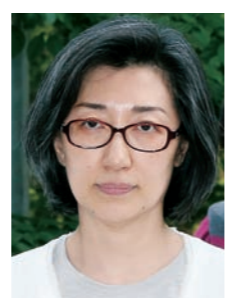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리 전 대표는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의 후임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옥시가 출시한 '옥시썩썩' 가습기 당번에 함유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표시해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좌영길 기자 jy97@

최은영 한진해운 前회장은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사진)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 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 jy97@

대우조선 프로젝트 500건 전수조사

부실 의혹 수사중인 검찰 특수단 2006년 남상태 사장 취임 후 자료 배임 혐의·사익 추구 여부 등 살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이 2006년 이후 진행된 프로젝트 500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현물자료 250박스,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한 자료분석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러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해양플랜트 선정을 포함한 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주 단계부터 건조, 회계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실무자 조사를 마치면 분석회계 규모를 밝힌 뒤 책임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12년 3월까지,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관계자는 두 전직 사장의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대우조선해양감사위원회 진정 내용,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며 "막연히 배임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영진의 사익 추구 여부에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러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두 전직 사장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 줄기를 짚어 갈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최근 경영판단

능리가 대두되면서 순수한 경영판단과 사적 이익을 나눠서 보는 게 최근 판례 경향"이라며 "횡령과 배임 적용에 있어 법리에 충실한 접근을 하기 위해 정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최근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와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를 불러 압수물 현황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2006~2009년 대우조선 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이 오만 선상호텔과 당산동 빌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남 전 사장이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연세대 동창인 정씨가 대표로 있는 휴맥스해운항공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좌영길 기자 jy97@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검찰 고발 당한 국민연금공단

前 본부장 700억대 배임 혐의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논의되던 지난해 단일 주주로는 삼성물

산의 최대 주주 위치에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이모씨 등 26명은 14일 오전 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흥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씨 등은 "내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에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리와 원칙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게 고발인들의 입장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금융그룹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KB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가장 빛나는
희망이기에,
KB손해보험이
아이들의 미래에
더 큰 안심을 주는
희망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5-3245호(2015.11.2)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인력 뺏고, 구조조정 회사원 대출 막고...

살벌해진 은행권 '여신 전쟁'

'충당금 비상' 대출관리 강화 국민, 타행 대출 전문가 채용 신한, 조선업 직원 대출 금지 하나, 대기업 여신 대폭 줄여

시중은행 여신그룹이 가계와 기업대출 등 여신관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 부실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들어 신한은행 등 타행에서 퇴직한 전문 심사역 4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말 채용직위까지 총 5명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

총 5명의 전문직무직원은 전문업종 해당 심사팀에 분산 배치돼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 조기경보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문직무직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심사역 및 기업금융센터장, 지점장 등을 타행에서 역임한 기업대출 관련 전문직이다.

이들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문

적인 심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행의 심사역을 채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계대출 실질연체율(매각 및 상각 전 연체율)이 0.35%에서 0.41%로 6bp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한은행(7bp)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치다. 신한은행보다 연체율 관리가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나관적이지 않은 경제전망 하에서 육석을 가릴 수 있는 투명하고 정교한 심사기법 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해 기업금융 심사역량을 한 단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타행 재직 시 채득한 각종 심사 노하우를 당행 심사역에게 전수하고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의 강자로 불리는 신한은행은 최근 각 지점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산조선 등 4개 조선·해운 업체들을 포함해 총 8개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신규 신용대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신규 대출 금지 상품은 '엘리트론'과

'TOPS 직장인 신용대출' 등 두 가지다. 두 상품은 신한은행이 선정한 우량 업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구조조정 기업 여신뿐만 아니라 해당업체 직원들의 여신까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EB하나은행도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통합 전 하나은행은 개인여신 비중이 높았고, 외환은행은 기업 여신이 높았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점된 여신을 줄이는 과정으로 한 분기에 최대 5조 원씩 축소하기도 했다. 두 은행이 통합된 후 "여마진을 감수하면서 대기업 대출을 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 내려져 여신관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대기업 여신이 많은 우리은행 역시 탈리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선·해운업 채권단에서 빠지면서 여신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민영화가 여신관리 강화의 주된 원인이다. 우리은행 여신그룹 관계자는 "민영화 이슈가 있어 기업가치를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여신관리를 더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황윤주·김우람 hyj@etoday.co.kr

시중은행 '여신 등급 강등' 조준 감사원은 '관리·감독 부실' 실는 노조는 채권단에 '파업불사' 강경

산은 '대우조선 딜레마'



산은이 대우조선 여신 등급을 낮추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따라 대우조선 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 설 불리 등급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시중은행과의 여신등급 격차가 두 등급 이상 벌어질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등급 조율에 나서게 될 수 있다.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우조선 관련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산은은 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산은 관계자는 "연체 등의 특별한 리스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여신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각 은행마다 여신 관리 규정이 있다. 시중은행이 여신을 낮춘다고 대책은행도 여신 등급을 똑같이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이 발표한 5조3000억 원 규모의 지구계획안에 맞서 지난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는 등 쟁의행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만약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자원을 중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5일 오후 산은의 대우조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대규모 부실을 낸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산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우리銀 매각설' 진화 나선 금융위

7월 공고소문에 "자나친 기대감 역효과" "수요조사 중... 시한 안 정해졌다" 수습

우리은행의 매각 공고가 7월 중 나온다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가 수습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우리은행 매각 일정과 관련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요조사가 진행 중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다"며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서 다음달 우리은행의 매각 공고가 나온다는 말이 무성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기대감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요조사는 잠재적 입찰 후보군이 나올 경우 이들에게 투자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입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을 위해 매수 희망자가 최소 2곳이 만족돼야 매각 공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한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2-3달 이

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 시국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7월 중 수요조사가 끝나고 이르면 8월께 매각 공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7월 매각 공고설은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해외 기업설명회(IR)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해외 기업설명회에서 매수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금융권 안팎으로 전해졌다.

매각 총 지휘권을 가진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다고 말해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우리은행 주가는 1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고, 경영지표도 대폭 개선된 상태다. 정부로서는 우리은행의 매각이 이미 네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영권 프리미엄 매각방식을 고수하던 금융위는 지난해 7월 10%씩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이 과점매각 방식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과점매각은 1차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이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예보와의 MOU로 막혔던 각종 제약들이 사라져 영업활동의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총자산순이익률(ROA), 순고정비율(ROA) 등을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맞춰야 한다. **김우람 기자 hura@**

보험사 곳간도 양극화... 지급여력비율 격차 최대 36%

대형사 1분기 10%p 이상 오르고 중소형사는 최대 22%p 떨어져

대형보험사와 중소보험사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형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전분기 대비 약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최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 1분기 RBC비율은 350%로 전분기 대비 13.5%포인트 증가했다. 한화생명도 288.4%로 전분기 대비 11.4%포인트 늘었다. 교보생명도 262.8%로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중소생보사인 KDB생명은 1분

생보사	2015년 12월말	2016년 3월말	전분기대비
대형			
삼성생명	336.5	350	13.5 ↑ %P
한화생명	277	288.4	11.4 ↑ %P
교보생명	259.8	262.8	3.1 ↑ %P
중소			
KDB생명	178.5	156.1	22.4 ↓ %P
현대라이프	189.8	173.7	16.1 ↓ %P
흥국생명	183.1	189.5	6.4 ↑ %P

기 RBC비율이 156.1%로 전분기 대비 22.4%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업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현대라이프도 173.7%로 전분기 대비 16.1%포인트 감소했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그만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다.

재무건전성 양극화는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 1분기 RBC

비율은 363.4%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현대해상은 180.4%로 9.3%포인트, 동부화재는 217.1%로 6.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롯데손보(151.9%), MG손보(152.9%)는 간신히 권고수준에 턱걸이했다. 농협손보(194%)는 RBC비율 자체는 양호했지만, 전분기 대비 19.4%포인트 하락으로 손보업계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박규준 기자 abc84@**

www.duzon.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자동수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분개: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재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비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정보처리)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응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KB금융그룹

또 하나의 별

현대증권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2723호(2016년05월23일~2017년05월22일)



퀀텀닷이나, OLED나... 삼성·LG 'TV 주도권' 다툼

삼성전자 '퀀텀닷 소재·LED' 결합 QLED 개발 집중 LG는 'OLED TV' 주력... 글로벌TV 시장 선점 나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TV 기술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양사가 글로벌 TV와 디스플레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자사의 기술지배력 확대를 통해 업계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퀀텀닷 TV와 OLED TV를 주력 제품으로 삼고 글로벌 TV 시장 선전에 돌입했다. 서로 다른 기술의 패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상황에서 기술적 우위를 둘러싼 양사 간 경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9년 'LED TV vs. LCD TV' 경쟁을 시작으로 2010

년 3D 기술을 놓고 '서터글라스 vs. 편광'으로 대립했다. 이어 2012년 촉발된 다른 패널구조의 'RGB OLED vs. WOLED'로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화두는 양사가 미래 핵심 제품으로 정한 퀀텀닷과 OLED 간 기술경쟁이다.

배리 영 국제OLED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디스플레이 전문지(디스플레이 데일리) 기고문을 통해 퀀텀닷 대비 OLED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2019년 QLED를 양산한다는 계획은 쓰레기 같은 소리"라며 삼성전자의 QLED TV(퀀텀닷 LED)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내부적으로 OLED

삼성전자 퀀텀닷	vs.	LG전자 O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카락 굵기 수만 분의 1 크기의 자체 발광 초미세 반도체 입자, 퀀텀닷 적용 'SUHD TV' 주력 제품으로 향후 QLED로 진화 기본 발광체 대비 높은 색 재현성, 광 안정성 OLED 대비 높은 수명 및 저렴한 가격 발열 및 발광에 따른 수명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 글로벌 유일 대형 OLED 생산, 'OLED TV' 대중화 주도 낮은 전력 소모, 뛰어난 색 재현성, 초박형 제작 가능 짧은 수명 및 비싼 가격, 번인 현상, 어려운 양산화 기술

를 대체하는 '비온드 OLED' 전략을 세우면서 퀀텀닷과 OLED 두 진영 간 기술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TV 시장 리더인 삼성전자의 행보에 따라 TV 시장은 물론 패널 시장 경쟁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일하게 대형 OLED 패널을 생산 중인 LG의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를 늘려 OLED TV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삼성전자는 시장 리더 위치에서 기술 안정성과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고민 끝에 퀀텀닷 디스플레이, 나아가 퀀텀닷 소재와 LED를 결합한 QLED를 미래경쟁력으로 선택했다.

중국과 대만 등 해외업체들의 거센 추격도 양사의 기술 경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패널사업의 경우 정 부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LCD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삼성과 LG의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TV 시장과 패널 시장은 각각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기준 27.5%, 수량기준 21.0%의 점유율로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글로벌 대형(9인치 이상) LCD 패널 시장에서 24.3%의 점유율(출하량 기준)로 26분기 연속 업계 리더 자리를 고수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거센 추격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올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중국업체 점유율(출하량 기준) 합계는 삼성전자(21%)와 LG전자(13.2%)의 점유율 합계보다 불과 2.8%포인트 낮은 31.4%다. 같은 기간 패널 시장도 2~4위를 중국 BOE(17.3%), 대만 AUO(16.3%), 이노룩스(15.2%)가 차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4.5%의 점유율로 5위에 그쳤다. 김지영 기자 guty@

박대영 삼성중 사장 "올 1500명 희망퇴직 전 임원 사직서 제출"

사내방송 통해 자구안 이행 의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이 자구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 사장은 15일 오전 사내방송을 통해 "7월부터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시장 임금 전액을 반납하고, 임원들은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모든 임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경영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구안에서 밝힌 희망퇴직 등 인력 운용에 관한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경영상황과 연계해 전체 인력의 30~40%를 효율화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약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복리후생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극한의 원가혁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물량 감소에 따라 일부 플로팅도크, 3000톤 해상크레인 등 잉여 생산설비도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2018년까지 약 9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5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 실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그동안 난색을 표했던 그룹차원의 지원을 의미하는 유상증자에 대한 계획도 포함됐다. 또 생산에 직결되지 않는 자산은 전량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이미 매각한 1500억 원 규모의 기계회탈 외에 산정연수소, 판공R&D센터, 유가증권 등 4000억 원을 더해 총 5500억 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자구대책을 통해 △핵심역량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고정비 30% 절감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삼성SDS "주주 가치 최우선 11월 이전에 물류 분할 결정"

소액주주 항의 방문에 박성태 전무 "인적분할로 손해 최소화" 밝혀

삼성SDS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물류사업부 분할 여부를 5개월 내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액주주들은 일부 전제 조건을 내걸었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였다.

14일 박성태 삼성SDS 최고재무책임자(CFO·전무)는 서울 잠실 삼성SDS 본사 서관 지하1층 파스칼홀에서 주주들과 만나 "이사회에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CFO는 "사내 자금 중 현금성 자산이 1조8000억 원가량 있다"면서 "등기이사 한 명으로서 주주들의 뜻과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다른 이사회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 분할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는 만큼, 4~5개월 내에 결정될 것"이라며 "인적분할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SDS 소액주주 50여 명이 회사의 물류사업부 분할을 반대하며 항의 방문했다. 소액주주들이 항의 차 본사를 찾은 것은 4월과 지난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항의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 회원들이 14일 서울 잠실 삼성SDS 본사를 항의방문해 삼성SDS 박성태 전무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은 3시간 뒤인 오후 5시께 합의점을 찾으며 마무리됐다.

유재남 소액주주 대표는 "소액주주들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가량의 스텝을 구성했다"며 "만약 2주가 지난 뒤에도 요구 사항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고소고발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영상 사장의 '신사업 고민'

자유가 기초에 포스코대우 1분기 영업이익 977억 11.9% 급감 신사업추진반, 亞소비재 시장 목표로 中유통망 개발 先추진



김영상(사진) 포스코대우 사장이 글로벌 경기 불황과 자유가 등에 대응할 신사업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대우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9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8830억 원으로 14.2% 줄었고, 순이익은 667억 원으로 21.8% 감소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868억 원, 3분기 878억 원, 4분기 833억 원을 기록했다.

미얀마의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대우는 유가가 오를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러나 자유가 기초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원 개발 사업에 수익성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김 사장은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신사업추진반을 신설했다. 신사업추진반의 첫 행보는 5월 중국에서 이뤄졌다. 포스코대우는 중국 선양과 충칭에서 열린 '2016 한류 상품박람회'에 참가해 중국 내수 시장

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밖에도 김 사장은 지난달 17일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2016 지역전략회의를 열며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지역별 추진 경과 점검에 나섰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신사업 발굴에 대한 김 사장의 의지가 남다르다"며 "현재 한·중 협력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인구 30억의 소비재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SKT, 모바일 결제 서비스 'T페이' 가입자 50만명 돌파



SK텔레콤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T페이'가 출시 석 달 만에 가입 고객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한 T페이는 오프라인 매장서 멤버십 할인과 결제를 동시에 해주는 것은 물론, 카드나 현금 없이도 휴대단 결제가 가능하다. T페이는 출시 두 달 만인 지난달 14일 가입 고객 30만 명, 누적 결제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면서 돌풍을 예고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삼성, 中 틈새시장 공략 신형 폴더폰 내놓는다

중장년층 공략... 프리미엄·보급형 '투트랙 전략'



'갤럭시S7'장기 흥행으로 2분기도 호실적이 예고된 삼성전자가 중국에 폴더폰을 내놓으며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폴더폰을 준비 중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는데, 인도 물류 회사 웹사이트에 포착된 이미지처럼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폴더(사진)'의 후속작이란 가능성과 갤럭시 S7급 부품을 탑재되는 하이엔드 플립폰(바형 폰)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폴더폰은 저렴한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은 폴더폰이지만 스마트폰처럼 인기 앱을 쓸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위챗 같은 메신저 앱도 구동이 가능하다. 기

계 값도 싸고 사용료도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라인업의 스마트폰을 내놓는 만큼 폴더형 폰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중저가폰으로 물량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실행 중이다. 갤럭시S7에 이어 중국형 제품인 '갤럭시S7시리즈', 2016년형 '갤럭시S7시리즈'를 잇따라 중국 시장에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조양호 회장 직접 나섰다

계리 왕 시스팬 회장 설득 긍정적 반응... 나머지 협상 '청신호'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용선료 조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1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선주사인 시스팬의 계리 왕 회장(CEO)을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 초청,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용선료 조정안을 협의했다.

시스팬은 120여 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선주사다. 한진해운은 이 중 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7척을



빌려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시스팬은 한진해운과의 용선료 조정 요청에 대해 "인하는 절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여왔다. 계리 왕 회장은 지난달 공식석상에서 한진해운이 1160만 달러(약 138억 원)의 용선료를 연체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 회장과의 만남은 용선료 협상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이다.

시스팬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선회한 만큼 나머지 21개 선주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진해운은 보고 있다. 지난달 초 협상단을 구성해 용선료 조정 1차 협상을 마쳤으며, 현재 2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목표 인하율은 30% 수준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고객과의 오랜 신뢰 관계, 영업 네트워크 등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각오로 자율협약 조건 충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우버 만난 현대차 기술 협력 나서나

15-16일 남양연구소서 기술 세미나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기술 세미나를 갖는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및 IT 업체들이 차량 공유 업체와 앞다투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양사의 협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버 연구진은 이날부터 이틀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 연구원들과 함께 기술 세미나를 갖는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와 잇따라 전략적 제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차량공유 업체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우버와 기술 협력을 갖는 것이 향후 전략적 제휴를 맺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세계 58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우버가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만큼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차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버 관계자들이 15일부터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은 다양한 업체들과 갖는 통상적인 기술 세미나의 성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고맙다 송·현·아” 미소짓는 정지선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애칭〉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아울렛 시장에 진출한 이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전통 백화점에서 아울렛으로 사업을 확장해 종합 유통기업으로 변모를 모색한 정 회장의 결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15일 증권업계 및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개장한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신규점 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송도점 매출은 시장 예상을 넘어 김포점, 판교알파돔시티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송도국제도시맘(송도맘) 카페에서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송·현·아’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송현아에 지금 가면 주차 자리 있나요?”, “송현아 맛집 좀 소개해주세요”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송·현·아’는 현대백화점의 의도된 마케팅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친근한 별명이 온라인에 먼저 생기면서 지역 사회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아울렛 오픈 이후 최단기간 최대 매출 기록을 세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송도점은 매출목표 2300억 원을 10% 이상 초과달성 중이며, 오픈 직후부터 BEP를 넘어 2분기 영업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신규 점포들도 순항 중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3월 오픈한 동대문점은 매출목표 1500억 원을 10% 이상 초과달성한 것으로 파악돼 BEP 도달 시점도 당초 연내 목표에서 2-3분기로 앞당겨질 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전경. 뉴스시스



**송도아울렛, 역대 최단기간 최대매출 기록
오픈 직후 손익분기점 넘어 2Q 실적 기대감
동대문점도 매출목표 10%이상 초과달성
내년 아울렛 매출비중 10% 수준까지 확대**

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경영 초반 ‘안안정, 후성장’을 경영정책으로 삼고 신규 출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을 택했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백화점 신규 출점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10년간의 내실을 다진 이후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2월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과 4월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오픈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아

울렛 매출 비중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7.9%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1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백화점 3사 중에서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입지 선정과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기세를 몰아 면세점 사업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특허 획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발효식초, 마실래 바를래?

웰빙 다이어트 열풍 타고 파인애플식초 등 매출 쑥... 헤어케어 제품도 인기

신진대사를 원활히 돕고 피로 회복 효능이 뛰어난 발효 식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음용 다이어트 식품부터 헤어 케어 제품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NS홈쇼핑 '어네스트 파인애플 자연발효 식초'.

15일 NS홈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단독 론칭한 어네스트 파인애플 자연발효 식초는 주문달성률 153.1%, 총 주문액 1억3400만 원을 기록했다. 13일 3차 방송 판매분 역시 127.7%의 주문달성률, 8405만 원의 총주문액을 달성했다. 이 제품은 자연발효 공정을 통해 식초로 만들고 살균 대신 사과농축액을 첨가했다.

이처럼 최근 파인애플 식초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열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로 파인애플에 포함된 브로멜라인 성분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 근육생성에 도움을 주고, 식초가 신진대사를 촉진해 지방분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식초는 또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화춘 호르몬이라고 하는 파로틴의 분비를 촉진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오픈마켓인 G마켓 또한 지난 12일까지 한달간 감식초 품목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가량 증가했다. 닥스 다이어트, 웰빙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마시는 형태의 식품 수

요와 함께 발효식초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식초 열풍은 헤어 케어 제품에도 이어졌다. CJ 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헬스, 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이 단독 수입 판매하는 이브로슈의 라즈베리 헤어 식초(린싱 비네거)는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40% 성장했다.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뒤 1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만 4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프랑수아 레드와인 발효식초 성분을 함유한 헤어 린스로, 식초의 산성 성분이 샴푸의 염기성 성분을 중화시켜 두피와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김지에 올리브영 MD는 “자연성분인 헤어 식초의 인기는 최근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성향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청년 창업·중기 지원” 유통업계 상생바람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에 청년창업 매장 이마트, 전통시장 상인 대상 교육 컨설팅 롯데도 15개 업체 선발 전문가 자문 제공

유통업계가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한 셀러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 사업가에게 매장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유통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에 청년창업매장을 구성하고 입점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테리어 지원과 수수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1조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으로, 글로벌 쇼핑몰 개발기업인 미국 터브먼 자회사 터브먼아시아가 49% 지분을 투자해 신세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신세계그룹은 또 2월부터 중소기업진흥청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 17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창업자들은 주얼리, 안경테, 옷칠유기, 생활한복 등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는 13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년창업 및 기업승계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교육과정은 39세 미만 전통시장 내 창업 예정자와 기업 승계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각 부서의 팀장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진열방법, 식품위생, 서비스 실천 방안 등을 전수하고 있다.

롯데그룹도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말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억 원의 시제를 출연했다. 롯데쇼핑 등 주요계열사에서 200억 원을 출연해 300억 원을 마련했으며, 이 중 150억 원을 창업전문 투자법인인 ‘롯데액셀러레이터’ 설립에 우선적으로 투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선발한 핀테크, 헬스케어, O2O 등 15개 업체에 창업지원금 2000만 원과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을 6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청년 창업자에게 유통업계의 상생방안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통 업체는 고정 소비자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액상분유 이어 이유식 시장 진출

‘베비언스 바른 입맛 이유식’ 7종 출시

LG생활건강이 액상 분유에 이어 이유식 시장에도 진출하며 유아 전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아기 전문 브랜드 베비언스는 궁중음식 전문가인 한복선 씨가 월령별로 아기에 필요한 영양에 맞게 재료를 구성한 ‘베비언스 바른 입맛 이유식’ 7종을 15일 출시했다.

설탕, 소금,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한우 사태와 국내산 무·대추로 육수를 우려내는 등 원재료로만 맛을 냈고, 보존제가 필요 없는 고온·고압·살균 방식의 레토르트 포장했다.

베비언스는 이유식과 함께 ‘영양가득 국내산 알밤’, ‘아기 쌀과자’ 등 유아용 간식도 함께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바른 입맛 이유식’.

제품은 전국 이마트와 이마트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다.

앞서 베비언스는 곧바로 수유가 가능한 액상 분유, 베이비 스킨케어 제품 등을 선보였다. 2012년 9월 출시된 베비언스 액상 분유는 지난 4월 누적 생산 3000만 병을 돌파했다. 베비언스의 액상분유 시장 내 점유율은 85%이고, 분유 시장 전체에서 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SPECIALTIES
1025.1537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91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92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6191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64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9 롯데백화점 서울역점 02)6365-2637 롯데백화점 광교점 031)8064-2168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1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1695 현대아울렛 가산점 02)2136-9743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02)2283-2118 AK백화점 수원점 031)240-1286 이마트월드 02)313-4108 타임갤러리 070)8265-5528 이노아이 02)6002-6123 시계상사 031)441-0802 티파니 031)931-5555 WB(워치보이) 070)8632-5300 패션아일랜드(예진) 042)280-9117 로스텔(명성시계) 광복점 051)253-5315
[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점 02)2136-2584 동화면세점 02)1688-6680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3997 SM면세점 서울점 02)2120-6027 JTO 064)780-7669

158년 유기농만 고집... 내 몸과 자연을 지키는 비누



닥터 브로너스는 158년, 5대째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기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상업적 광고 없이 미국 최대의 유기농, 친환경 마켓인 홀푸드 마켓에서 16년 연속 미국 유기농 보디케어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믿는 진실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 존경과 사랑은 환경과 사람 모두에 유익한 제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다하려는 닥터 브로너스의 진심에서 비롯된다.

◇유기농 라이프스타일 전문 브랜드 탄생 = 닥터 브로너스는 1858년 독일 하일브론 지방 비누장인 가문의 후계자였던 엠마뉴엘 브로너가 미국으로 이주해 설립한 유기농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이다. 엠마뉴엘 브로너는 미국 여러 비누회사의 컨설턴트를 역임하며 비누에 대한 열정을 쏟았으나, 당시 화학공업에 의존한 비누의 문제성에

獨 비누장인 엠마뉴엘 브로너
1858년 미국으로 이주해 설립
농무부 인증 유기농 원료 사용
100% 분해... 화학폐기물 없어
매년 수익 3분의 1 사회환원
동물실험 배제... 공정무역 지원도

대해 자각하게 된다. 결국 1948년 '인간에게는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자연에게는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아래 닥터 브로너스를 설립했고, '페퍼민트 매직 솜(비누)' 론칭을 통해 본격적인 비누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현실을 목격한 엠마뉴엘 브로너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념이 자리 잡게 된다. 이후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인종과 종교를 떠나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설파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 들어 히피 문화를 주도하고 반전과 비폭력, 사랑을 추구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닥터 브로너스의 평화와 공존, 친환경적 철학에 하나 둘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닥터 브로너스 매직 솜으로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등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 샀다. 이때부터 닥터 브로너스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전 세계 33개국에서 대표적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수익 일부 사회 환원·친환경 추구 = 닥터 브로너스는 매년 수익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한다. 기업의 이익을 의미 있는 사회운동 후원



닥터 브로너스 연혁

- 1858 창립자 1대 엠마뉴엘 하일브로너가 비누공장 설립
- 1880~1890 독일 최초의 리퀴드 타입 비누 개발
- 1920~1930 3대 엠마뉴엘 하일브로너 미국 진출
- 1948 현재의 브랜드 명이자 회사명인 '닥터 브로너스 매직 솜' 설립,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솜' 론칭
- 1950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
- 1990 4대 집 브로너, 알프 브로너가 회사를 공식적으로 관리
- 1997 3대 닥터 브로너, 파킨슨 병으로 타계
- 2003 5대 데이비드 브로너가 관리, 오래된 틸스 및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 획득
- 2007 스위스 인증 기관 IMO와 협력해 공정무역 동참
- 2008 브로너 가문의 비누제조 150주년, 닥터 브로너스 설립 60주년 기념 '시트러스 오렌지 퓨어 캐스틸 솜' 출시
- 2011 유기농 버진 코코넛 오일 출시
- 2012~2013 GMO라벨 표시 의무화 운동지지, 금전적 지원 시작
- 2016 16년 연속 미국 유기농 보디케어 시장 점유율 1위 고수

이나 자선단체를 통한 기부에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시했던 엠마뉴엘 브로너로부터 5대째 이어진 경영 방식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전부는 아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친환경, 유기농, GMO(유전자변형작물) 라벨링, 동물복지, 공정무역,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지구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닥터 브로너스의 모든 제품은 환경과 인간에 무해하도록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을 받은 유기농 원료로만 만들어진다. 또 100% 생분해 성분으로 화학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일임을 일찍이 깨닫고 실천해 왔다. 2003년부터 닥터 브로너스는 전 제품에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USDA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선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하며 재배 기간 중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합성 계면활성제, 파라벤 등 합성 화학성분은 일체 함유하지 않고, 방부제 역시 천연 원료로 만

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 고집스러운 만큼 까다로운 닥터 브로너스의 친환경 유기농 철학은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GMO식품 표시 의무화를 주장하고 후원하는 것 역시 닥터 브로너스의 친환경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닥터 브로너스는 유전자 조작 제품이 화학성분의 과도한 사용은 물론 인간과 지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고,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라벨 표시 의무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닥터 브로너스는 9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GMO표시제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퓨어 캐스틸 솜'의 모든 라벨을 교체한 바 있다. 또 식품에 GMO가 포함됐는지 표시하는 주민 발의 법안과 캠페인에 수익 일부를 후원하고 있다.

닥터 브로너스는 동물보호를 넘어선 동물복지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전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리핑 버니(Leaping Bunny)'는 동물 실험을 배제한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마크다. 마이클 브로너 닥터 브로너스 사장은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다른 방법의 과학적 실험을 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지속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닥터 브로너스는 공장형 축사의 비윤리적 사육환경을 비판하고 사육 동물 보호를 위한 후원을도 지속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 행복 위한 공정무역·공정임금 = 주원료인 팜 오일의 수급 과정에서 중간업자만 이익을 보고, 생산자의 농부들은 배를 굶는 기형적 구조에 기반한 닥터 브로너스는 2006년부터 원료를 재배하는 농장과 공장에 공정한 임금과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공정무역을 시작했다. 닥터 브로너스는 세렌디티드라는 자매회사를 스리랑카, 가나 등 세계 각지에 설립하고 팜오일, 민트오일, 코코넛오일, 호호바오일 등의 원료를 공정무역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원료가격 10%의 공정무역 프리미엄, 거기에 10%의 지역사회 발전 기금을 더한 작가를 통해 농가 노동자들과 가족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병원, 학교를 건립하는 등의 후원 또한 아끼지 않는다. 현재 세렌디티드에 소속된 1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닥터 브로너스의 공정무역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대가 차원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 주고 있는 것이다.

닥터 브로너스는 임금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장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작년부터는 페이니스 프로젝트 그룹과 함께 미국 50개 주에 투표를 권의하고, 참여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공정 임금에 대한 메시지를 적은 스페셜 라벨 제품을 출시,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정 판매하며 수익의 일부를 공정임금 단계에 기부할 예정이다. 더 많은 이들이 공정임금을 인식하도록 캠페인도 개발 중이다.

◇사회가치 실현·공익없는 소통 = 지난해 닥터 브로너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식으로 공익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공익기업이란 이윤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표면화를 넘어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닥터 브로너스는 벌어들인 이익을 함께 일한 직원들과 자연, 그리고 세계와 함께 나누는 신념 아래 진심을 바탕으로 정직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확고한 신념으로 정직한 제품을 만들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15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닥터 브로너스가 우리 곁에 함께하며 사랑받는 이유다.

닥터 브로너스는 시그니처 제품인 '퓨어 캐스틸 솜' 외에도 립밤, 보디로션, 헤어리ンス, 코코넛오일, 세너타이저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또 독특한 친환경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주도·지원하며 지역 사회와 공존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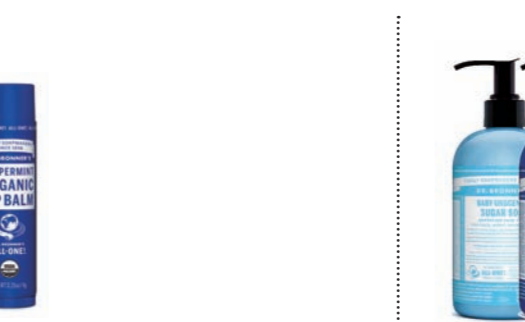
퓨어 캐스틸 솜&바솜
세안은 물론 샤워, 삼푸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클렌저. 자연에서 얻은 최고급 원료만을 사용, 합성계면활성제 등 화학 성분을 일체 배제하고 미국 USDA 인증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 제품으로 남녀노소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체 11종 중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솜'과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바솜'은 닥터 브로너스의 론칭과 함께 선보인 최초의 향으로 상쾌한 페퍼민트 오일 성분이 쿨링효과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유기농 버진 코코넛 오일
유기농 100% 제품으로 맛이 우수한 스리랑카산 코코넛을 마지막 걸질까지 그대로 압축해 풍부한 향과 영양을 담았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처럼 사용하면 피부 보습과 향균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먹고 버리는 만능 뷰티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오가닉 매직밤&립밤
'오가닉 매직밤'은 입술, 눈가, 팔·발꿈치 등 건조한 피부에 디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보습과 영양을 선사하는 고농축 멀티밤이다.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을 만들어 주어 메이크업 제품과 믹스해 사용해도 좋다. 자연의 향이 은은하게 남아 퍼콤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오가닉 립밤'은 95% 이상 유기농 성분으로 제조돼 안심하고 입술에 사용할 수 있으며, 건조하고 손상된 입술에 뛰어난 보습을 제공한다. 번들거리지 않아 립 메이크업 전후에 사용하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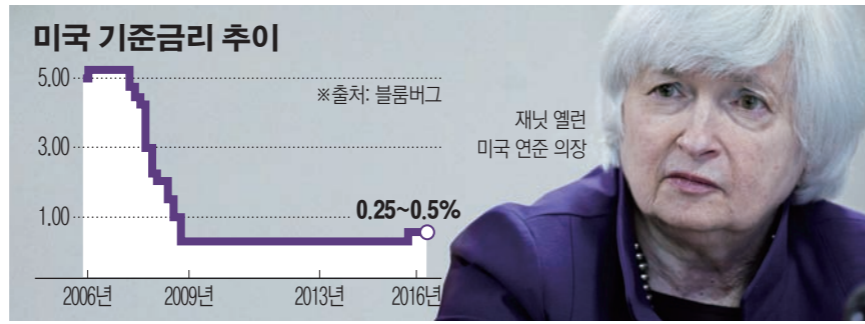
오가닉 슈가 솜&시트러스 오가닉 헤어리ンス
'오가닉 슈가 솜'은 정제수가 아닌 유기농 포도주스를 함유해 더욱 촉촉한 보습을 제공하는 멀티 클렌저. 모발과 두피를 위한 열매로 불리는 시카카이 성분이 들어있어 샴푸로 사용하기에 좋다. '시트러스 오가닉 헤어리ンス' 역시 유기농 시카카이 성분을 함유한 리ンス로 두피와 모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탈모, 두피 트러블, 민감성 두피에 보습과 영양을 제공하며 모발에 볼륨감과 윤기를 선사한다.

‘고용지표·브렉시트’에 발목 잡힌 엘런

(美 연준 의장)

美 연준 FOMC 개막

구인은 늘었지만 고용 연결 안돼
英 EU 탈퇴 가능성에 시장 요동
‘나 홀로 금리인상’ 부담감 커져
6월 금리인상? 7월로 연기할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 7월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FOMC 회의 이후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패배적 발언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다. 특히 제니 엘런 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 열린 한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오를 수 있다”고 발언

하면서 조기 기준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5월 고용지표 발표 후부터 달라졌다. 지난달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크게 부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고용 쇼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3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면서 ‘나 홀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한층 커지게 됐다.

그러나 엘런 의장을 더 고민하게 만든 건 수급 불균형 현상을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이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고용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일손은 부족할 데도 고용 성장은 둔화하는 등 미스매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간 고용지표는 미국 경기 회복세의 상징으로 통했다. 엘런을 비롯해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자신 있게 내미는 것이 고용지표였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고용 통계에 따르면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사업소 조사, 계절 조정)는 전월 대비 3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0년 9월 이후 최소였으며 시장 전망치 평균(16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8월에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도 부진을 이어

가진 마찬가지였다.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JOLITS)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업의 신규 구인 건수는 580만 건으로 200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된 노동자는 510만 명으로 전월의 530만 명에서 오히려 줄어 들었다. 구인은 늘어났지만 정작 구인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금리인상을 하게 될 경우 경기 과열을 불러올 수 있어 연준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엘런 의장도 패배적인 입장을 보이다 지난 6일에는 점진적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태도를 바꿨다.

이에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 미국 국제선물 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6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최근 한때 34%까지 높아졌지만, 지난달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5.6%로 떨어졌고, 14일에는 1.9%로 더 떨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마윈 “짜퉁이 진품보다 낫다”

(알리바바 회장)

모조품, 진품과 같은 공장·원자재 써
짜퉁 근절 모든 일을 다해야 하지만
OEM업체 가격·품질 더 좋아 문제



알리바바그룹홀딩의 마윈 회장이 14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행사에서 짜퉁이 진품보다 낫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진은 마 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설하는 모습.

마닐라/AP뉴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홀딩의 마윈 회장이 짜퉁 제품의 품질이 진품보다 낫다고 일갈해 모조품 근절을 요구해온 명품업체와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마 회장은 이날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현재 중국산 모조품이 진품보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좋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들 제품은 진품과 똑같은 공장에서 같은 원자재로 생산된다. 단지 브랜드가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짜퉁 제품 근절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OEM업체들이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어 이런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품업체들을 망치는 것은 모조품이 아니라 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명품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마진 확대 등을 이유로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의존해왔다. 이들

공장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기술력을 쌓은 끝에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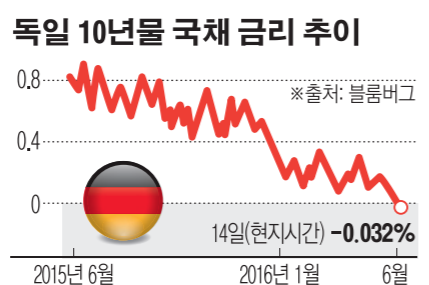
그러나 마윈 회장의 발언은 맞든 안 맞든 짜퉁 문제를 해결해 해외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통신은 꼬집었다.

지난달 짜퉁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 비영리기구 ‘국제위조반대연합(IACC)’은 알리바바의 회원 자격을 유보했다. 지난해 구찌와 입생로랑 등의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캐링은 알리바바가 모조품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獨 10년물 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

브렉시트 우려... -0.032%로 하락
투자자 안전자산 선진국 국채로 이동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의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선진국 국채로 몰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유럽 채권시장에서는 유로존 장기금리의 지표인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0.032%)로 하락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조치로 일관으로 유로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우려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로 자금을 옮긴 영향이다.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의 부진을 보이던 이후 금리 하락 압력이 높아졌다. 스위스에서 이미 20년 만기 이상인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거래 중이고, 일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금리까지 마이너스권으로 주저앉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혼란의 원흉인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이날 한때 1.11% 안팎으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기 금리의 하락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수익 약화도 불가피하다. 14일 유럽 증시에서는 은행주 지수가 5일 연속 하락하며 약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이체방크의 자금 조달 불안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런던 지하철, 비현실적 몸매 광고 ‘아웃’



영국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프로틴 월드’의 광고가 영국 런던의 지하철역 벽에 붙어 있는 모습. 노란색 비키니 차림의 여성과 함께 ‘해변용 몸매, 준비됐나요?’라는 선정적 문구가 적힌 이 광고는 지난해 지하철과 트램 등 공공장소 1만2000곳에 부착됐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디크 칸 런던 신임 시장은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이런 선정적 광고는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14일(현지시간)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날 “사춘기 딸을 돌 돌 아버지로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광고를 매우 우려한다”며 “이제 이런 것들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런던교통국은 앞으로 이 같은 광고를 감시하는 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런던/인디펜던트

우버, 레버리지론으로 20억달러 ‘총알 장전’

中·세계 시장 진출 확대 나서

세계 최대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레버리지론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3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버는 바클레이스와 모건스탠리 등을 통해 레버리지론으로 10억~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레버리지론은 투자 등급 미만의 중견기업에 담보를 받고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우버는 대출금리를 4~4.5% 수준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대출기관 결정에 달렸다. 현재 레버리지론 시장에서 첫 발행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3.9~5.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우버의 이번 레버리지 대출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

다. 우버는 2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제외하고도 현금성 자산으로만 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실탄은 두둑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이는 스타트업이 유지할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 역시 처음이었다. 한마디로 대출을 굳이 받지 않아도 현금에 넉넉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버가 전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버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과의 경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밥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맛있는 음식 뿐이 아닙니다

계란반찬 한 개라도 나눠먹는
나눔 한 입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차린
협동 한 접시

부모님이 먼저 드시길 기다리는
존중 한 수저

동생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배려 한 접

인성 밥상

함께하는 밥상에서 아이의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인성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관, 지역본부, 가정유치원센터, 교육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문의 ·
1588-1940

최태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미래 창업해야”

(SK그룹 회장)

고등교육재단 장학생 29명 격려
“융합시대, 인류발전에 기여를”

‘인재는 희망’ 대이은 인재사랑
1974년부터 664명 박사 배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창업해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해 달라.”

SK그룹은 1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단 선발 장학생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과 선발 장학생 외에 이문석 SK사회공헌위원장,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재단 이사인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자원이 하나도 없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인재였고,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은 인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무한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장엄한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패기 있게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최태원 SK회장(앞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29명의 해외유학 장학생에 장학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그는 “융합 시대에 필요한 덕목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폭넓은 연구 활동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해 달라”며 “내가 받은 혜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선발한 해외 유학 장학생과 매년 만나고 있다. 최 회장은 매년 SK그룹 신입사원들과의 대화 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재단 선발 장학생들과 만나는 것 모두 인재육성만큼은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SK 측은 설명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이 1974년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재단 측은 올해 선발한 29명의 해외유학 장학생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순수자연과학 분야, 정보통신 분야 등 3개 부문에서 선출된 학생들로, 미국 하버드, MIT, 스탠퍼드, 중국 베이징대 등 세계 유수대학 박사 과정 진학을 앞두고 있다.

재단은 지금까지 모두 664명의 국내외 명문대학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으며 330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1998년 최태원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장학사업 외에도 국제학술 교류지원 사업부문까지 영역을 넓혀 현재는 중국과 아시아 내 7개국 17개 지역의 아시아연구소(ARC)도 운영하고 있다.

한천수 기자 재경본부장은 “기아 차가 한국의 대표적인 투명회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회사 경영은 물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기아차, 상장사 첫 2년 연속 ‘투명회계 대상’

표준회계기준·철저한 내부회계관리로 경영 투명성 높여

기아자동차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회계학회 주최 ‘2016 투명회계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상장사 최초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는 전사적으로 통일된 표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영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 통일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엄격한 사전관리를 통해 재무 정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회계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천수 기자 재경본부장은 “기아



기아차 재경본부장 한천수 부사장(오른쪽)과 한국회계학회 황인태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차

차가 한국의 대표적인 투명회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회사 경영은 물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13일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보험협회(III)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을 수상한 미국 휴스턴다운타운대학의 파멜라 헐리 교수(왼쪽 세번째)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두번째), 마이클 모리시에 IIS 회장, 파비앙 소머록 제네바어스 시에이션 사무차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교보생명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

美 파멜라 헐리 교수·인 니하 쟁글 MIA 디렉터

교보생명 신용호 창립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계보험협회(III)가 제정한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에 미국 휴스턴다운타운대학의 파멜라 헐리 교수와 인도 비영리단체 MIA의 니하 쟁글 디렉터가 선정됐다. 1997년에 제정된 이상은 한국인 이름으로 전 세계 보험학자에게 수여하는 유일한 상이다.

신용호 창립자는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 제도를 창안하는 등 세계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 세계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인물이다.

파멜라 헐리 휴스턴다운타운대학 교수는 ‘신용호 시장 혁신을 위한 보험산업 재설계’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니하 쟁글 인도 MIA 기후 변화프로그램 디렉터는 ‘농업의 기후비용: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장주의 비용 계량화를 위한 새로운 수확량 지수법’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MIA는 소액보험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다. 2007년 인도에서 공익신탁을 통해 설립됐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세계그룹 부회장)

일자리 창출 팔전은 정용진...상생채용박람회서 인재 찾는다

21일 코엑스에서 2차 채용박람회
지난 2월 부산·10월엔 대구
장애인·경단년 채용도 적극 나서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개최한 ‘신세계 그룹&파트너사 상생채용박람회’가 신세계·중소 협력회사 구직자에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 올해 연 3회로 횟수를 늘렸다. 지난 2월 부산 1차 채용박람회에 이어 6월 서울, 10월 대구에서 열린다.

채용박람회에는 고용노동부 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후원에 참여해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장애인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 채용관을 포함한 참여기업 별 부스에는 각 기업 인사담당자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람회 진행 시간 동안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조선포털,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인터

내셔널, 신세계DE, 신세계티비쇼핑, 신세계프라퍼티, SSG.com 등 16개사가 참여한다. 판매, 영업, MD, 디자인, 마케팅, 물류, 외식, 바리스타, 호텔 서비스, 시설 관리, IT 등 다양한 직무에 걸쳐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도 바리스타, 상품판매, 온라인 사이트운영, 사무지원, SW개발, 디자인 등 다양하다.

정용진 부회장은 “열린 채용 기회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고용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이 파라다이스 시티 삼계탕 특식 행사에서 2600명 협력사 직원에게 삼계탕을 배식하고 있다. 사진제공 파라다이스그룹



효성직원들이 14일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이상식(오른쪽 여섯번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와 이은희(왼쪽 일곱번째) 중립종합사회복지관장이 14일 사랑나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건설직원에 ‘삼계탕 특식 파티’

파라다이스그룹은 14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내 첫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건립 부지에서 건설사 직원 260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삼계탕 특식 파티’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룹이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려고 마련됐다. 이날 점심 파라다이스 시티 건설 현장에서는 전필립 회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건설사 직원들을 위해 삼계탕 파티를 준비했다. 파라다이스 시티 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SK건설 직원들은 점심 특식으로 준비된 삼계탕 파티에 호응을 보였다.

전필립 회장은 “이번 행사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공사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말을 전했다. 이꽃샘 기자 flowerslee@

백혈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효성 ‘행복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효성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28일까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나누는 ‘행복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것으로 13일 울산공장부터 본사를 포함한 수도권 사업장과 창원·구미 등 주요 지방사업장을 거쳐 28일 안양공장까지 이어진다.

조현준 효성 전라본부장(사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기업과 나라의 미래”라며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이번 전사 차원의 사랑의 헌혈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서는 효성에서 마련한 소정의 치료비와 함께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를 통해 백혈병과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농협하나로유통·중립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 사회공헌협약’ 체결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14일 서울시 중구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립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나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 이후 농협하나로유통 임직원 20여 명이 중립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기증을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사랑나눔 상자를 전달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올해 3월부터 월 2회씩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눔씨앗 캠페인’에 참여해 임직원 개인 책상에 비치한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있다.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립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농협 하나로마 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저커버그 ‘페이스북 라이브’ 유명 코미디언 즉석 섭외 첫 방송 4시간 만에 600만 조회

마크 저커버그(사진 왼쪽)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사용자들과 대화를 진행하던 도중 미국 유명 코미디언 제리 사인벨트가 깜짝 출연했다.

저커버그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의 페이스북 본부에



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 ‘마크와 의 Q&A’ 도중 “지니는 누군가를 봤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사인벨트와 함께 카메라 앞에 돌아왔다.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생중계 시청과 녹화 파일 시청을 합쳐 방송 4시간여 만에 600만 회의 조회수를 넘어서었다. 이재영 기자 jly0403@

인사

-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자물과장 오명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승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건설사전지원과장 이상철 <전보> △도시계획과 주

- 태과장 이진철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장 최형욱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김준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사업이사 황의동
- ◆중외대 △임학처장 이광의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이중화 △공공실용실습실장 박영도

부음

- ▲민승규(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농촌진흥청장)씨 모친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3410-6919
- ▲이양현(전남대 명예교수)씨 별세, 김선자(전남대 명예교수)씨 남문상, 이계일(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계혁(KBC광주방송 기자)씨 부친상, 윤세정(서울 윤치과의원 원장)·김다은(광주 KS병원 전문의)씨 시부상 = 14일,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062-670-0030
- ▲유대겸(전 군위중고 교장)씨 별세, 유지웅(평화뉴스 편집장)·지홍(경북대 법학연

- 구소 연구원)씨 부친상, 박경희(가톨릭신문 편집팀장)씨 시부상 = 13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53-957-4442
- ▲채일병(전 국회의원·전 광주발전연구원장)씨 모친상 = 14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62-250-4470
- ▲강영순(세창 대표이사)·진순(유진투자증권 부사장)씨 모친상 = 13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51-305-4000
- ▲김은광(관희트니스 점장)·숙영(연세대 국가고시지원센터 교직원)씨 부친상, 안승욱(전국꽃배달협회 차장)씨 장인상 = 13일, 중앙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860-3500

연재소설

한만수 작 사유진 화

서울 25시, 夜

제1화 이노베이션 리브 ⑩

손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꿈 같은 광경에 입안이 바짝바짝 타 것이다. 감증을 뜨겁게 삼키며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간다.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옆구리의 감촉, 그 위로 맘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거드름이 슬슬 쓰다듬는다.

그 부분을 뜨겁게 달구어진 혀로 핥으면 이숙영이 숨넘어가는 표정으로 몸을 비틀며 신음을 터트리는 상상을 할 것이다.

이숙영이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도 치밀한 계산의 결과일 것이다. 남자들이 자기 손목을 보면서 걸음은 점잔을 떨고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섹슈얼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나는 외로워요. 뜨거운 내 몸의 불꽃을 꺼주세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 이 차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 저한테 전화를 주실래요?

남자들은 온갖 상상을 하며 손목을 바라볼 것이다. 뜨거운 침을 삼키며 엉덩이를 들쭉거리며 그녀를 잡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묘한 미소를 남기고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잃은 사이에 그녀는 홀연히 사라진다. 졸지에 바보가 된 토담의 남자들은 기를 쓰고 출입을 할 것이다. 귀한 것일수록 아름다운 법이다. 다이아몬드가 강변의 돌처럼 흔하면 아무리

름하고 연관되는 이미지가 없었다. 고개를 가웃거리다 지배인에게 물었다.

“이상한 말을 하기는 하더라...”
지배인은 50대 초반이다. 이숙영의 친구 오빠이기도 하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거렸다.

“나쁜 말인가요?”
이숙영은 머그잔에 담겨 있는 커피를 한 모금 흘쩍이며 지배인을 뺨히 바라봤다.

“왜 나쁜 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배인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오빠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토담 안에서는 여왕일지 몰라도 백천길 앞에서는 차마 두른 여자에 불과하다니 뭐라나?”

“어 어머!”
이숙영은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다. 너무 차츰스러워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잖아.”
“도,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작자예요?”
이숙영이 발끈한 얼굴로 물었다.

“글쎄, 입고 있는 옷은 명품이기는 한데, 물결은 사흘 굵은 거지처럼 생겼더라구.”



단단해도 보석이 아니다. 돈이 벽지처럼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은 이미 돈이 아니고 벽지일 뿐이다.

백천길은 내일을 디테일로 잡았다.
이숙영이 신비스러운 빛을 발하는 곳은 오직 토담 안이다. 토담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처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일을 쓰기도 하고,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다닐 것이다.

서른 빛의 뜨거운 육체를 지닌 여자일 것이다. 자기 아무리 고고한 적해도 속으로는 남자가 그리울 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남자의 품에 안겨 아침을 맞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튿날이다.
동전의 앞면에 베팅을 하느냐. 뒷면에 베팅을 하느냐 갈등을 하다 보면 성공률은 50%다. 특수한 동전이라서 뒷면도 앞면과 같다고 베팅을 하면 100% 성공하거나 실패할 뿐이다. 사업을 하면서 100% 성공을 확신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은 50%다.

백천길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종로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이숙영은 지배인이 내미는 명함의 뒷면을 봤다. 백지다. 다시 앞면을 봤다. 백천길이라는 천박해 보이는 이름 석 자와 휴대폰 번호가 있다. 집 주소나 사무실 주소도 없는 명함이 좀 특이하다는 하.

“다른 말은 없던가요?”
이숙영이 아무리 생각해도 백천길이라는 이

“무슨 명품을 입었는데요?”
“내가 볼 때 이태리 명품 브랜드 로로 피아나(Loro Piana)를 입었는데, 내가 분명히 봤어. 양복 안쪽에 제니스(ZENITH)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걸 봤거든.”

“오빠가 예전에 명품 판매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확실하겠지.”
이숙영은 명품을 입었다는 말에 조금은 화가 가라앉았다. 팔짱을 끼고 정원을 향해 섰다. 점심시간이 지난 지 2시간이 넘었다. 그런데도 정원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다섯 팀 정도 있다.

“백천길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거나, 등골계 원을 그리고 서서 담소를 하거나, 바위에 걸터앉아서 금붕어에게 풀잎을 던져주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손님 모두의 마음은 오직 하나 오를 짝꿍을 터트릴 수 있을까 하는 염원을 품고 있을 것이다. 손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 등을 보니 모두 나름 한 가닥씩 하는 작자들이다.

어떻게 생겨 처먹은 놈이 감히 나한테...
토담에 오는 손님들은 어떡하면 얼굴 한 번 볼까 하고 어미 새를 기다리는 새끼 새처럼 안달하고 있다. 얼굴도 근본도 모르는 작자가 저녁 7시까지 근처에 있는 카페 ‘이삭’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그것도 나와 줄 수 있는냐가 아니다. 나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어떤 작자인지 나가 보자니 자존심에 치를 떨었다.

프랑스는 지금



손 우 현

한림대 국제학부 객원교수
전 주 프랑스 공사 겸 문화원장

“프랑스는 파업의 챔피언이다. 프랑스를 찾은 200만의 축구팬들에게는 그렇게 각인될 것이다.” 이 말은 ‘작은 월드컵’이라 불리는 ‘유로 2016’이 개막한 10일 프랑스 민영 TV ‘TF1’의 기자가 한 냉소적인 멘트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 노조의 파업은 이날도 계속됐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 ‘무기한’ 파업은 지난 두 달간 여덟 번째 철도 파업이다. 열차가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유럽에서 프랑스 철도노조의 파업은 프랑스를 찾는 축구팬들에게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열차 외에 에어프랑스 노조도 이날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했다. 이번 파업으로 TGV는 5대 중 4대, TER(지역권 급행열차)는 10대 중 7대, Intercities(중거리 도시 간 완행열차)는 2대 중 1대가 운행했다. 에어프랑스는 80% 운행했다. 한편 청소년노조들의 파업으로 파리 도처에 쌓여 있던 쓰레기는 민간 용역까지 동원한 파리의 특별 작전으로 ‘유로 2016’ 개막일에 맞춰 수거됐다.

프랑스의 요란한 파업을 보면 당장이라도 파국이 틀어닥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파업 사태가 일상생활에 불편은 초래하지만 프랑스 사회를 마비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로 2016’은 예정대로 개막하고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이것이 프랑스의 수수께끼다.

이번 파업은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혁에 반대해 일어났다. 다른 주요 EU 국가들과는 달리 경직된 노동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는 그동안 EU와 IMF 등으로부터 노동법을 개혁하라는 압력을 부단히 받아왔다. IMF는 프랑스의 현 개혁안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5월 새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이례적으로 의회 표결이 필요 없는 긴급명령권을 동원했다. 법안은 13일부터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원제인 프랑스는 미국과 달리 하원 위위여서, 이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노동 개혁은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교육자책은 내년 4.5월(차 및 결선) 실시 예정인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정치적 사활을 건 승부수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2년 이후 5년째 10%를 웃돌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5% 수준에 달한다. 낮은 성장률에다 과도한 노동 보호가 겹친 결과다. 올랑드는 프랑스의 제2대 지방지 ‘SudOuest’와의 회견에서 “노동법 개혁안은 우리나라에 유용한 진일보한 법으로 철저히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올랑드의 지지율은 바닥을 쳐 집권 이래 최저인 11%라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는 상태다.

개혁의 골자는 주 35시간인 노동시간을 최대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했고, 수주 실적이 나 영업 이익이 줄면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요건도 완화했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 30년 이상 계속돼온 프랑스 좌파 노동정책의 대전환이다. 개정되는 노동법은 미리암 엘 콤리

(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콤리 법’으로 명명됐다. 엘 콤리는 모로코 출신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8세의 여성 정치인이다. 프랑스에는 장관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많다. 이는 정책입안 책임자인 장관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개별 회사 단위에서 타결된 노사 협상 결과가 업체나 산업 전체의 노사 협상에 선례로 적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노조 측은 개별 회사 단위의 노사 협상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사회학자 다니엘 랑아르트는 르몽드지와의 회견에서 이는 “규범의 위계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프랑스 여론은 이번 파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않다. 열차 파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한 통근자는 프랑스 민영 TV ‘TF1’과의 인터뷰에서 “더 힘든 직종이 많은데 철도 파업을 주도하는 기관사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또 한 시민은 “민주주의는 투표로 하는 것

다”라는 프랑스 역사학자 스테판 시로(Stephane Siro)의 견해를 소개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하는 게 통례인데 프랑스의 경우는 협상 전에 파업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문은 각종 여론 조사에 의하면 노동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과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거의 반반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오늘날 프랑스의 파업은 걸음으로는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노동계,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이 치밀하게 연출하는 무도회(‘a carefully choreographed dance between labor, government and the public’)라면서 이는 132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 노조의 현주소라고 논평했다.

신문은 “프랑스에서 노조의 전성기는 지났으며, ‘파업이 불편함을 주지만 나라를 완전히 문닫게(shut down the country entirely)는 못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어디에서나 세계화의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노조들은 분열돼 있다. 일부 노조는 정



‘죽느냐 사느냐’라고 쓰인 피켓을 든 CGT(노조동맹) 시위 여성. 파리/AFP연합

파업 속에 시작한 ‘유로 2016’ 전통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데도 좌파 정부 추진 노동개혁 반대 “이제 전성기는 지났다” 얘기도

인데 일부 과격 시위는 무정부나 마진까지다”라고 개탄했다.

프랑스 국영철도 기관사들은 1년에 126일을 쉬는데 이는 역무원보다 12일이나 많은 것이다. 또 기관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 하루 평균 6시간 30분 이하이다. 그리고 중간 경력 기관사의 경우 보수가 세금 공제 후 월 3000유로(보너스 포함)로, 프랑스에서는 적은 임금이 아니며 국영철도 직종 중에는 가장 높다. 복지 수준이 높은 프랑스는 봉급에 대한 원천 징수가 많다.

프랑스 뉴스에 대해 평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 언론도 프랑스의 파업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중도 좌파(centre-left) 성향의 가디언(The Guardian)지는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경직된 노동법의 개혁으로 10%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길 희망하나 근로자들은 그들이 ‘어렵게 쟁취한 특권과 권리’(hard-won privileges and rights)가 침해당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신문은 프랑스 파업은 걸음으로 요란하지만 “일상생활은 조금 느려져서 그렇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신문은 또 ‘파업은 프랑스 DNA의 일부인가?’(Is striking part of the French DNA?) 제하의 기사에서 “거리 시위는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

부의 노동 개혁을 수용할 태세이나 최대 노조인 ‘노조동맹(CGT)’은 이번 노동개혁이 ‘기업의 대변인이 된’ 좌파정부의 배신이라고 비난한다. CGT는 14일 프랑스 전역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파업 사태에 대해 경경 입장으로 일관하던 엘 콤리 노동부 장관은 처음으로 CGT 사무총장 필립 마르티네스와 17일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4개월간 계속된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에 출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베르나르 베비에 프랑스 고등노동연구소장은 11일 프랑스 공영방송 ‘A2’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만큼 두 사람의 면담에서는 주로 주변적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는 지금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유로 2016’은 역대 경기 중 가장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지고 있다. 지난 10일 프랑스와 루마니아 간의 개막전이 열린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는 작년 11월 13일 IS 테러의 목표물이 됐던 곳이다. 프랑스 전역은 현재 비상사태하에 있다. 작년 파리 테러 직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7월 말까지 계속된다. 7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전거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프랑스가 노동개혁, 테러와의 전쟁 등 21세기의 국내외 도전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파리지사장, 주 프랑스 공사 겸 문화원장, 대통령 해외공보비서관, 문화관광부 정부간행물제작소장 역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기사장* 수훈, 저서 ‘프랑스를 생각한다’

제2인생의 동반자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유혹, 마음의 솜구침!
PART1. 문사철의 유혹 인문학과 교제하다 성찰에 빠지다
PART2. 희망의 유혹 떨림의 유혹이 멈추지 않는 한 인생 후반전은 더 넓게
PART3. 일탈의 유혹 제 2의 사춘기처럼 왜 우리는 일탈에 끌리는가?
PART4. 여행의 유혹 여행, 이 미약과도 같은 알 수 없는 홀림의 근원이며!
PART5. 이성의 유혹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이성의 유혹에 빠져라!
PART6. 성형의 유혹 “100세 시대, 좋은 인상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죠”
PART7. 맛의 유혹 “나이가 들었다는 건 제대로 된 맛에 대한 그리움 찾기”

선라보가 만난 사람
“행복추구 모든 것 (번영학)에 담았죠”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늦었다 싶었을 때 나의 전성기는 시작됐다”
64세 ‘대세 배우’ 장광
“봉사를 원하세요? 눈높이를 낮추세요”
한국해비타트 이창식 이사장

6월의 맛 초여름 입맛 돋우는 자연 한상
초록빛 자연의 싱그러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6월이다. 계절마다 제철 과일이나 해산물을 맛보는 것이 좋는데, 이맘때면 푸른 생기로 가득한 채소를 먹는 것이 제격이겠다. 익히거나 양념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라면 더욱 좋다. 유기농 쌈 채소와 구수한 보리밥, 숯불장작구이까지 즐길 수 있는 ‘산촌보리밥’을 소개한다.

정책발언대

송 언 석 기획재정부 2차관

변화하는 공공기관

국민은 아직도 공공기관 개혁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와 발전을 함께 하며,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발전의 큰 기둥이 되어 왔다. 도로, 철도 등 국가의 기반 교통망을 구축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공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주거 시설 건설에도 앞장서왔다. 1980년대 이후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안전망도 공공기관과 함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앞서 6월 10일 도입을 완료하였다. 남은 과제는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 지표 설계과정의 직원 참여,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져야 함에도, 공공기관은 변화에 둔감한 채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점차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에서 멀어져 갔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칭하며 조직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가시적 수치로 성과를 나타냈다. 매년 40조 원 내외로 증가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연간 2000억 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년간 8000여 명의 신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 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게 되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120개 전체 대상 기관이 정부가 권고한 기한

에 앞서 6월 10일 도입을 완료하였다. 남은 과제는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 지표 설계과정의 직원 참여,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파도와 비바람을 뚫고 순항해온 그 중심에는 묵묵히 경제를 뒷받침해온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다시 한 번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

물 좀 주소! 목마르요~



우 승 택
생태연구소장

한국만이 아프리카를 살리고, 아프리카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필자는 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신들의 돈 18억 달러를 가지고 국가를 부흥시켜 달라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다녀왔다. 그 나라 대통령을 제외하고 도시사, 장관, 기업인 등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고 왔다.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좋았다. 날씨도 좋았고 거리도 평온했다. 그러나 필자의 고정관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돈 대겠는데 투자자가 있는데 못 할 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하던 필자의 자신감이 막상 현지에 가보니 흔들리는 것이었다.

아프리카 국가가 투자자가 되어 돈을 대고, 한국인이 경영자가 되어 지식을 공급해주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즉 노동력을 제공할 아프리카인들의 평균 역량이 착하기는 하지만 직업교육, 단체교육, 사회교육이 안

뉴 패러다임의 '한국 군대'를 수출하자

된 사람들처럼 여겨졌기에,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이번에 필자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작금 3년 후부터는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빅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그쪽 대표를 불러, 다시 제안을 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수익을 당신 나라에 기부할 테니 그 돈으로 한국처럼 징집병 제도를 도입해 60만 대군을 만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아해하는 상대방에게 "한국군의 인원은 항상 60만 명이고, 사병은 월급이 15만 원이며, 2016년 국방예산은 약 37조 원이며, 한국 군대는 전투조직이기는 하지만 20여 개의 병과(兵科)를 가진 첨단 대학이다. 1.보병 2.기갑부대 3.포병 4.군사 CI 등의 정보병 5.공병 6.IT 정보통신 7.생화학 바이오의 화생방 8.병기 9.경영학인 병점 10.수송 11.문화예술의 군악, 의무병과 종교, 스포츠 등을 다 가르치는 곳이다. 더구나 한국의 군대는 종이 위의 글자로 가르치고 있는 '죽은 대학'이 아니라, 삶의 전태에서 싸우면서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진짜 대학'이다. 당신네 나라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으니 국방예산도 7억 달러이면 충분할 것이고 우리가 매년 3억 달러씩 수익 전액을 기부한다면 군대를 만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답은 "Yes! Sir!"였다.

그 나라는 60만 징병제도를 도입하면 내전도 방지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훈련된 남녀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진짜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생기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몰려와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과거 구로공단, 구미공단, 창원공단 혹은 개성공단 같은 구역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 5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인류의 보배인 한국의 50~70대가 다 맡게 될 것이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그 나라 군대의 숙달된 교관이자 교사, 교수도 될 것이며, 가난했던 한국 가정을 책임졌던 한국 여인들은 더 필수적인 교수 요원일 것이다. 또한 정부 보조금과 값싼 해외노동력을 수입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는 3D업종의 회사들, 공급과잉, 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지금의 한 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라 12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지금은 개략적 시놉시스만 나왔지만 '돈을 좇는 장사꾼'이 아닌 '일을 좇는 사업가'들이 목마른 한국인들을 살릴 시나리오, 촬영, 마케팅 그리고 흥행을 맡아 한국과 아프리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대박 영화가 개봉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오늘의 인물 6월 15일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1953.6.15-)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공산당 일로인 시중진 전 부총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2012년 후진타오로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물려받고,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올라 명실상부한 중국의 1인자가 된 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전임자인 정쩌민과 후진타오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였기 때문에 시 주석과 같은 힘을 갖지는 못했다.

시 주석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운동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

을 펼치면서 자신과 권력투쟁을 벌였던 저우용강 전 상무위원과, 비리로 얼룩졌던 링지화 전 중국 통일전선공작부장 등 라이벌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또 그동안 총리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제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해 리커창 현 총리가 별다른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이런 시진핑이지만 권좌에 오르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문화혁명 시절 산시성 랑저허촌으로 하방돼 무려 7년 동안 토굴에서 생활했다. 공산당에 10년이나 입당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버지의 복권과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와 칭화(淸華)대를 졸업하고 나서 경

마오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의 비서로 공식생활을 시작했다.

권좌에 오르기 전인 2012년에는 저우용강, 보시라이 전 총정시 당서기 일파와 텐안먼 사태 이후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당시 저우용강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시진핑은 1인자에 오르기 전에는 중국 국민가수 펑리위안의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지기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외교전략이던 '도광양회(韬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라는 말이 속 들어맞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온라인 외글와글



'어나니머스' 추종해 해킹한 고교생 검거 "죄인 줄 몰랐다고?"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를 추종해 수 천 개 웹사이트를 해킹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외 웹사이트를 해킹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바꾼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 2학년 A(16)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87개국 3847개 웹사이트를 5070회에 걸쳐 해킹, '이 사이트는 해킹됐다' 등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첫 화면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54개 업체 141개 사이트가 A군의 해킹 피해를 봤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웹사이트 해킹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기업의 피해액이 상당할 듯", "모르고 했다니 더 기가 막혀", "뛰어난 능력을 좋은 데 썼어야지", "실력이 좋은 건지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건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카드로 보는 세상



음식에 제품 이름 대신 칼로리가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다? 바로 최근 등장한 인스타그램 계정 '칼로리 브랜드(Calorie brands)' 이야기입니다. 제품 이미지에 로고 대신 칼로리가 크게 적혀 있고, 프렌치 프라이가 515칼로리, 프링글스 과자 1320칼로리, 콜라 140칼로리 등과 같은 식입니다. "당신의 휴가철, 몸매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답게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세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Cw9EJV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화소식!!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윙스팟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 크면 스윙스팟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이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피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하다.

두배로 넓어진 스윙스팟(sweet spot)면적

넓어진 Sweet Spot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짧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사프트 ※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림

유래, 상대,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m는 늘어났고 원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허리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큼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혹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드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어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양꼬마>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드!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져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샐럼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를 추켜추켜.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최종찬 칼럼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창의적 인재가 나오게 하려면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유리창 뒤에는 10명의 근로자가 1명의 근로자를 이길 수 있으나 바둑에서는 아마추어 10명이 아마리 열심히 연구해도 이세돌 기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국민의식, 문화 등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학교 교육부터 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위주, 정답 위주의 교육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암기력 좋은 학생이 우등생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잡다한 지식을 외우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과거 수많은 학생이 독일어를 외우고 외국지리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가? 일전에 신문에 어느 중학교 시험 문제가 1번 머리기사로 난 적이 있다. 내용인즉 깎두기를 몇 cm로 잘라야 하는가 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왜 외워야 하는가? 이제 정보를 외우는 교육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나?”라고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오늘 무슨 질문하였느냐”라고 한다. 정답을 외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틀린 답이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여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과 토론 등 창의성이 확대되도록 교육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둘째, 튀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창의성은 획일화된 문화에서 나올 수 없다. 다른 생각, 새로운 시도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다. 너무 튀지 말라는 것이다. 때로는 이단아같이 보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알파고를 만든 ‘허사비스’는 고교 때 게임회사에 취직한 후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그 후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하였을까?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지나친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 어른이나 직장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문화에서는 자유분방한 생각이 나올 수 없다.

셋째,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공기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실현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안 되면 누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학을 떠날 기회도 있어야 한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지식집약적 산업 시대이다.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 여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식집약적 산업 시대이다.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 여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자본시장부 차장

코스닥 한탕주의 기승-전-테마?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증시에 정치테마가 판을 치면서 개인들이 입은 손실이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이례적으로 개인 손실을 집계해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정치 테마주 추종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 출마 후보자들로 거론되는 인물들 위주로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사돈에 팔촌까지 찾아내 기업들과 연관시켜 테마주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전기장비 업체인 A기업의 주가는 연초 5000원에서 다섯 달 만에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또 섬유외복 업체인 B사는 대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외조카가 대표이사로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 최근 한 달 사이에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3000원대 중반으로 치솟으며 급등세를 연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장사들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치인과 연관된 인물을 사모이사 감사에 올려놓고 주가가 오를 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체인 P사는 얼마 전까지 유명 정치인의 동생을 부회장으로 영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 국회의원을 영입하는 선에서 끝나자 주가는 보란 듯이 곤두박질치며 개인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비단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4차산업 혁명을 언급하며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 등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히자 아직 실체도 없는 기업들에 ‘묻지마 투자’가 이뤄지



고 있다. 지난해 한때 중국 관련 사업만 진행한다고 하면 금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술하게 많았다. 북경면세점점단과 함께 중국 면세점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장사만 3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 모두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한탕주의를 노리며 갖가지 테마주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그 말로는 참담하기만 하다. 주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이 테마주에 휩쓸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속칭 ‘마바라’ 투자가 아닌 실적과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테마주 형성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증권사도 살아남지 못한다. 증권사들이 무분별한 테마주를 가려 건전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테마주들은 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시장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ssj@

이종배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은 단순히 법률가를 배출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변화의 역동성을 꿈꾸던 국민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기회 제공이었으며, 지배층의 자의적 결정에 한계점을 설정해 주기도 했다.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빈민의 자식이라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법관이 될 수 있었고, 실력이 없으면 고관대작의 자녀라도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합격자들의 이야기에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 내가 받은 설움을 그 사람에게 투영할 수 있었기에 내가 승리하더라도 한 듯 동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집단지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집단지성의 메카니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법시험은 성실히 노력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성과를 안겨줬다. 실력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

더라도 희망을 가슴에 품었기에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던져줬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집단지성이 진정으로 꿈꾸던 보편적 가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한다.

온전히 나로써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질투보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우선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마찰 대신 여유로 타인을 대하는 감정을 이끌어 내는 사회가 만들어질지 모른다.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로스쿨 입학원서에 거짓이 기업하거나 국회의원이 로스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는 것이 부끄럼 없이 당연시되는 현상이 이 땅에 자리 잡으면, 기성세대는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나마 한 사회를 마지막까지 지탱해 왔던 주춧돌이 사라질 것이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결과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이며, 힘 없이는 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생각한다.

이정필 정치경제부/roman@. 자동차와 이륜차 사이의 무엇.

오른쪽 아니면 왼쪽, 내 편 아니면 네 편, 중도를 인정하지 않는 흑백 논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스마트 모빌리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는 신개념 이동수단 역시 그중 하나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개념 자체에 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지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1-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 모델을 잇달아 선보였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는 시대의 요구로 대두된 일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들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일찌감치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노인이나 환자가 타는 전동카트, 골프장에서 이동할 때 쓰는 골프카트를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서 통할 만한 저속전기차를 개발했다.

중소업체들의 수출 활로를 막은 것

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속전기차 규제를 통해 사실상 도로에서 다닐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자국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마다하니 영세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시장의 패권은 정부가 신산업을 장려하는 선진국들로 이양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을 외치는 중이다.

다음 달부터 해당 규제가 풀려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해외 기준을 적용해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스스로 걸림돌을 치운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도입 기준은 아직도 미비하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고심 중이다. ‘자동차나, 이륜차나’ 하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다면 중간 단계의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의 그릇.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 | 김윤수 옮김 | 다산3.0 | 값 13,000원.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쉬고, 포진하게!!



누구나 한 두 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 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롱디스틴스 숏아이언을 잡으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40yd 더 나가는 **극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래미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Made in Korea -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살고 싶다... 기둥 하나 돌길 하나 멋들어진 '작품' 한점

이쁜 집 고운 집

6 상주 지중해풍 '해오름터'

상주 외남면 송지리에 가면 고즈넉한 시골마을 사이로 지중해풍의 저택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와가 아름답게 올라간 이 주택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마을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오랜 소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건축주는 마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때 문일까. S자 형태를 지닌 마을길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도록 마당 돌길 역시 S자로 꾸미며 주변 마을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모임지붕·박공지붕으로 연결된 지중해풍 엔틱기둥 주택 미적 요소에 균형감 더해 마을 연결된 연못 '일월연' 정자 '무작정' 누구나 와서 편히 쉬는 소통의 공간으로 사계절 감상 최고의 힐링 공간 '2층 다락' 주방·거실 개방형에 침실은 독립적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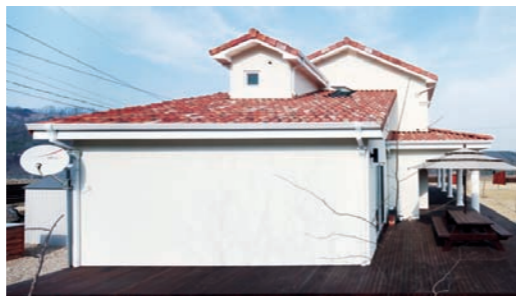
◇해와 달이 만나는 터, '해오름터'...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 주변보다 높은 산등성이에 위치한 이 주택의 이름을 건축주는 '해오름터'라고 지었다. 해와 달이 만나는 터라는 의미이다. 동남향으로 배치된 이 주택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바다 못지않게 멋들어진다. 지붕의 색깔 역시 하늘과 맞닿아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했다. 1층 모임지붕과 2층 박공지붕의 적절한 매치가 주택의 멋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주택은 사면이 넓은 나무 데크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보다도 지중해풍 주택의 포인트가 되는 전면의 엔틱기둥은 주택을 미적 요소뿐 아니라 균형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엔틱기둥은 사전에 골조공사 시에 기둥의 자리를 잡아 FRP(유리 및 카본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를 이용해 기둥의 외벽을 꾸몄다.

건축주의 마을에 대한 애정은 정원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 주택 가운데 정원을 배치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 건축주는 마당이 누구나 보고 즐기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실제 주택의 정원은 마을길과 연결되는 S자 형태의 돌길로 이어진다. 돌길을 따라 걷다보면 정자 하나와 하트 모양의 연못이 눈에 들어온다. 연못의 이름은 '일월연'. 해와 달이 함께하는 연못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이 연못은 건축주가 가장 신경을 쓴 공간 중의 하나이다. 연못 위로 설계된 물레방아는 주택의 평화로움을 더해준다.

멋스럽게 위치한 정자의 이름은 '무작정'이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듯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작정 없이 머물다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건축주는 마을 주



민들에게 '무작정'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원했다. 이에 편안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자 주변에 작은 소나무를 심어 놓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주택에서 2층 다락과 포치(건물 현관 또는 출입구의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는 손꼽히는 힐링 장소이다.

다락은 2층에 올라가자마자 만나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다락의 원형창에는 8각 창문틀을, 천장에는 계단재와 동일한 멀바우 자재로 창문틀을 조성하여 포인트를 줬다.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바깥 정자를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탄생했다. 2층 다락에서 원형창을 통해 바라보는 정원 풍경은 흡사 액자 속 그림 풍경과도 같다. 이 같은 매력 덕분에 이곳은 4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2층 복도는 기도실 및 명상의 공간으로 활용,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2층에도 포치를 주택 전면에 배치해 바깥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주방은 거실과 연결된 개방 공간으로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치했다. 식탁은 거실 소파 뒷면에 배치해 역시 대화가 항상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침실은 1층 원편에 독립적으로 위치했으며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침실 안쪽에 별도로 부부욕실과 파우더룸을 설계했다.

◇'해오름터'만의 특별한 인테리어 '로맨틱·풍경·성공적' = '해오름터'는 주택 전체적으로 평화로움과 자연미가 느껴지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급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기미했다.

현관은 블랙과 화이트 톤의 타일 바닥에 블랙 메탈 타일과 손잡이를 설치해 깔끔하고 심플하게 장식했다. 1층의 거실 아트월은 깨끗한 베이지 계열의 대리석을 사용하고, 벽면과 바닥 모두 밝은 계열로 마감해 공간을 훨씬 넓어 보이게 했다.

특히 내부 모든 창들을 대형 파티오 창으로 설치해 바깥 풍경을 집어 담고자 했다. 다만 창이 크면 단열에 취약할 수 있어 건축주와 협의 하에 단열성을 향상시킨 고사양의 창호를 설치해 이를 보완했다.

거실에는 화이트톤 분위기에 'v' 자형 퍼플 소파를 배치해 안락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한편 면은 모두 창으로 내어 정원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게 배치했다. 거실 창쪽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위치한 계단실은 멀바우 계단재 및 평철 난간을 사용해 화이트톤의 주변 느낌과 대비되어 확실한 포인트가 됐다. 계단 조명은 마치 구름 모양을 하고 있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주방은 그레이 브라운 색상의 타일로 마감하고 핑크색 가구를 꾸며 클래식하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핑크 가구를 선택했을 때 초기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아파트에서는 선택하기 힘든 과감한 색상을 단독주택에 적용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했다.

설계의 가장 큰 특징 및 아이디어 중 하나는, 보통의 아파트에서는 거실에서 화장실 입구가 바로 보여서 외부 손님이 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노출되는데, 건축주는 그 부분을 설계로 극복하고 싶었다. 따라서 손님이 방문 시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복도를 돌아서 만나게 되는 화장실의 배치가 돋보인다.

정경진 기자 jungkj@

해오름터 만든 '윤성하우징'은

'All 바른 생각, All 바른 공간' 건축에 스토리 담아

고객 요구 분석 최신 트렌드 반영 플래닝·건축·사후관리까지 원스톱

'All 바른 생각, All 바른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원주택·목조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윤성하우징은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집'이 아닌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건축주의 소통'을 중심에 두고 있는 기업으로, 언제나 한발 더 나아가는 철학과 시스템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All 바른 생각, All 바른 공간'이라는 기업 슬로건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분석한 최신 트렌드의 주택 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 최신 시공법, 친환경 자재 등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매년 다양한 건축 박람회에 참가하여 차별화된 주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 본사에는 상설 주택 전시장 및 자재 쇼룸을 운영하고 있어 예비 건축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내·외부 마감재, 욕실 및 위생기구 등 다양한 건축 관련 자재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용식(사진) 대표는 주택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작업에 임한다. 그는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고 늘상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철학 속에 탄생한 윤성하우징의 '원 스토리(One Story)' 시스템은 건축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건축주의 삶과 미래, 행복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건축 플래닝,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원스톱 건



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건축주와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건축주와 제일 처음 만나는 윤성의 한 우정 매니저들은 건축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 전반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건축 진행 과정을 파악해 건축주와 수시로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소중한 내 집 건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고객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최근 전원주택 건축에 있어서 친환경 자재, 시

공의 편리성, 단열의 우수성 및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목조주택 착공 동수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윤성하우징은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가진 목조주택 전문기업으로서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차별화된 디자인 및 시공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윤 대표는 "건축주의 삶을 담은 올(All) 바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윤성하우징은 다른 공법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목조주택 시장을 리딩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앞서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설계·인테리어 디자인에 걸친 다양한 시도, 자체 기술 연구를 포함한 선진 친환경기술 도입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주경간장 1545m...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첫 현수교'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



이순신 대교는 건설 당시 국내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초대형 현수교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순신대교는 순수 국산기술로 시공된 최초의 현수교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현수교 기술 완전 자립국이 됐음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이순신대교 전경.

우리 회사 최고 시공물 6 대림산업 '이순신대교'

해 상 특수교량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역 및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평가받고 있다. 웅장한 주탑과 긴 케이블, 날렵한 모양의 상판은 자연 경관을 더욱 빛나게 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이순신대교를 통해 우리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나 호주 시드니 하버브리지와 능가하는 초대형 해상 특수교량을 가지게 됐다.

◇국내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초대형 현수교 = 대림산업 컨소시엄(현대건설, SK건설, 동광건설, 금광기업, 남양건설,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순신대교는 건설 당시 국내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초대형 현수교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하늘과 바다 사이의 평행선', '철로 만든 하프'라고 불리는 현수교의 최대 장점은 교각이 많이 필요 없어 경제적으로 초장대 교량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

해상 특수교량 분야 최고 난이도 주탑 간 거리, 세계 4번째로 길어 이순신 장군 탄신년 기념 1545m

식의 교량으로, 현존하는 교량 중 가장 긴 경간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특수교량 분야 가운데 시공 및 설계 기술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최근 세계적인 해상 특수교량 건설 회사들의 공통된 화두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 즉 주경간장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되고 있

왕복 4차로·총 다리길이 2260m 양쪽 주탑 높이 270m 세계 최고 세계 6번째 기술 완전자립화 선언

다. 교량이 설치될 바다의 수심이 깊거나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선박의 통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경간장을 길게 늘리는 것이 대안이기 때문이다. 교각이 많을수록 시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장대교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경간장이 길어질수록 주탑의 높이가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하며, 바람과 같은 자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대교량 기술은 해상 특수교량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순신대교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건설되었던 다른 특수교량과는 규모나 기술력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세계 토목학계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할 만큼 비상한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이순신대교는 왕복 4차로, 총 다리 길이는 주탑 양쪽에 있는 축경간장 길이 715m(357.5m×2)를 포함해 총 2260m에 이른다. 특히 주탑과 주탑 사이의 주경간장 길이는 무려 1545m에 달해 일본의 아카시대교 1991m, 중국 시호우먼교 1650m, 덴마크의 그레이트 벨트교 1624m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긴 현수교량에 해당한다. 대림산업이 이순신대교의 주경간장 길이를 1545m로 설계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순신대교가 들어서는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해군제독으로 부임했던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던 곳이고, 광양 앞바다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자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노랑해전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점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했다.

◇세계 6번째로 현수교 기술 완전 자립화 선언 = 이순신대교 양쪽 주탑의 높이는 서울 남산(262m), 63빌딩(249m)보다 높은 해발 270m로, 콘크리트 주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로 시공됐다. 바다에서 상판까지의 높이는 최대 85m, 평균 71m에 달해 다리 밑으로 초대형 선박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주탑을 최대한 육상 쪽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해 인근부두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탑 사이의 선박운항 가능 폭은 국내 최장인 1310m로 길이 440m의 1만80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만8000개 선적)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도 안정적으로 양 방향 통항이 가능하다. 진도 7-8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기준으로 설계됐으며 이는 10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대형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순신대교는 순수 국내 기술로 시공된 최초의 현수교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현수교 기술 완전 자립국이 됐음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모든 분야를 자국 기술로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림산업은 이순신대교에서 완성된 한국형 현수교 원천 기술을 토대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해외 특수교량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국내 해상 특수 교량공사 실적'에서 확고 부동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1984년 12월 전남 여수시 돌산대교를 시작으로 해상 특수교량의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현수교 4개, 사장교 6개를 건설 중이거나 완료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MBC+

명품사극의 신화
이명훈 감독·최완규 작가 16년 만의 의기투합!
고수-전세연 주연 명품사극 결정판

옥중화

매주 수,목 오후 1시 40분
MBC Drama

'브루나이 심장'에 한국기술로 특수교량 건설

대림, 2013년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수주... 40km 돌아가던 길 600m로 단축

말레이시아에 둘러싸인 국토 면적 5765km². 경기도 절반 크기의 작은 왕국 브루나이. 인구가 40만명에 불과하지만 풍부한 원유와 천연자원으로 1인당 GDP가 2만6000달러에 이르는 저지대 강한 국가다.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석유·천연자원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인프라 개발과 공장설립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림산업은 이곳에 브루나이 최초의 해상특수교량인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Sungai Brunei Bridge)'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공사는 수도인 반다르스리브가완시를 관통하는 브루나이 강의 양쪽 지역, 갑푼 순가이 케분 지역과 잘란 레지던시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브루나이 정부가 남부지역을 개발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주했다. 올해 교량이 완공되면 기존의 40km에 이르는 거리가 약 607m로 단축된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브루나이 정부가 발주한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건설 공사를 약 1233억 원에 수주했다. 입찰 당시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 스위(SWEB)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다.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는 브루나이의 첫 번째 특수교량이다. 대림산업은 국교가 이슬람교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주탑을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1층에 이슬람 기도실을 설치하는 등 교량에 문화를 담아내고자 했다. 주탑의 최고 높이도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영



대림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특수교량 기술을 바탕으로 브루나이 최초의 해상특수교량인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 모습.

사진제공 대림산업

식 표기 157)을 기념해 157m로 잡았다.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는 단일 교량으로서는 브루나이 최대 규모다. 총 길이 622m, 주경간장 300m 규모로 왕복 4차로와 1주탑 사장교로 구성된다.

조서경 현장소장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 20층에 불과해 157m 높이의 주탑이 완성되면 브루나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된다"며 "브루나이 정부의 숙원사업인 만큼 디자인은 물론 최첨단 토목기술과 구조해석 등을 적용해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월 브루나이에서 두번째 교량인 템부롱(Temburong) 교량 2구간 공사를 약 4830억 원에 수주했고 지난해 9월에는 템부롱 교량 3구간 공사를 약 2100억 원에 연이어 수주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판교보다 녹지 풍부 인구밀도 낮아 '경기도 신흥 부촌'

기획도시를 가다

① 판교신도시

지난해 가을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몰려들게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마지막 회에서는 마이너스의 손(?)인 덕선의 아버지가 정봉이의 부모를 따라 정든 쌍문동 골목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흑시 있을지 모를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봉이 엄마가 동반이사를 권했던 곳은 다른 아님 판교였다. 2기 신도시의 상징 판교, 이곳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크게 성장하며 '제2의 판교'로 불리는 판교는 경기도 부촌 역사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탄생과 불황의 직격탄=판교는 판교와 함께 경기도 일산과 분당,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잇는 2기 신도시의 대표 지역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일대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덕동 등 2개 도시에 걸쳐 조성된 1130만5000㎡ 규모의 택지이다. 3만1000여 가구(인구 7만7000여 명)를 수용하는 행정복합도시이자 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건설된 이곳은 2005년부터 1단계 개발계획이 시작됐다. 당초 이곳은 이의신도시로 불렸지만 최종적으로 '판교'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판교는 2008년 9월 첫 분양 직전까지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2005년 8·31 대책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에서 분당은 판교 호재에, 수원은 판교신도시 덕에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용인에서는 당시 판교와 판교가 모두 '더블 호재'로 작용, 거래가 살아나

2005년 자족형 행정도시 목표로 '첫 삽' 2008년 첫 분양 금융위기로 미달 속출 경기 살아나며 분양가 8년새 89% 폭증

인프라 확충 쾌적한 환경 선호도 상승 신분당선 개통·법조타운 조성 등 호재 1기 신도시 노후화되며 대체도시 각광

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상현동 성원상대빌3차 55평형은 당시 호가가 2000만 원 인פק까지 치솟아 높게는 6억 원에 거래됐다. 업계는 판교가 판교, 동탄 등과 함께 수도권 남동부를 책임지는 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판교나 판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해가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당초 판교신도시에서 첫 분양된 울트라건설 잠누리아파트는 평균 1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초반 계약률이 70%대에 그쳤다. 이후 진행된 분양에서는 미달 사태가 잇따랐고, 추상복합 용지 입찰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총사업비만 2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파크 조성 사업은 건설사가 없어 연기됐고,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무산됐다.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는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렇듯 편의시설이나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입주자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판교, 경기 부촌 지각변동의 주인공으로= 판교신도시 첫 분양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약 3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그 사이 강남기업, 중흥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현



판교신도시의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1130만㎡에 총 3만1000가구 규모로 조성, 첫 분양은 2008년 시작했다. 사진은 2015년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판교 더샵' 모델하우스. 뉴스시스

대엔지니어링 등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이 지역 분양에 뛰어들었다. 첫 분양 당시 1260만 원대였던 분양가는 지난해 238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8년 사이 약 89% 폭증했다.

현재 판교는 판교·위례와 함께 2005년 이후 10년 동안 경기도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의 부촌지도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이들 2기 신도시로 대거 교체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1기 신도시의 대표주자인 일산은 2005년 3.3㎡당 매매가 940만 원으로 5위를 기록했지만 2010년 9월(1122만 원)로 내려앉은 뒤 올해 4월 기준 가격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분당은 2005년 3.3㎡당 매매가 1620만 원에서 올해 4월 1555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한때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됐던 분당은 그나마 6위에 이름을 올리며 체면을 세웠다. 반면 판

교·위례·판교 등은 1기 신도시를 제치고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오른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1,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의 평균치로만 봐도 지난 4월 기준 1기 신도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약 4% 오른 반면 2기 신도시 7%가 넘는 오름폭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베드타운 기능을 수행했던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판교는 녹지비율이 45%로 판교(35%)를 넘어섰고, 인구밀도는 ha당 53명으로 98명인 판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다른 신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는 의미다.

올해 신분당 연장선이 개통된 판교신도시에서는 현재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2019년까지 판교신도시로 이전

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판교청사는 내년 6월 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판교는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새 아파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기 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19곳, 모두 1만4100가구다. 지난해 48곳, 3만9213가구보다 64%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물량이 이처럼 줄어든 원인은 판교, 위례신도시 분양이 거의 끝났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규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아직 다양한 호재를 안고 있는 만큼 이미 입주한 단지가 조명을 받아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탁 트인 호수 전망에 최고 경쟁률 129대 1 "역시 호세권"

지난 2014년 판교신도시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분양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판교'는 최고 128.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뒤 계약 시작 4일 만에 전 가구가 완판됐다.

당시 이곳은 견본주택 오픈 당시 주말만 4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일찌감치 조기 완판이 예견됐던 곳이다. 이 단지의 특징은 판교신도시에서 주변 입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진 호수공원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일산호수공원 2배 크기에 달하는 판교호수공원은 원천호와 신대호수 2개로 이뤄져 있다. 이 두 호수공원 사이

에 자리 잡은 '힐스테이트 판교'는 판교 내에서 유일하게 양방향 호수조망이 확보된 곳이다.

판교신도시 하동 인근 공인중개소 측은 "조망이 좋은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청약도 성공적이고 시세도 다른 단지와 비교될 정도로 높게 형성된다"며 "호수 조망권은 시원하게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같은 단지라도 호수 조망을 가진 타입에 수요자들이 더 몰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을 진행한 '판교 아이파크' 역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호수 조망권을 가진 전용면적 84B

㎡는 59가구 모집에 4476명이 몰려들어 평균 75.8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판교신도시 내에 위치하면서도 호수생활권이 불가능한 '판교 상현 꿈에그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당시 1.09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에 겨우 기록했다.

호수 생활권 아파트의 높은 인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세종 중앙호수공원 앞에 자리 잡은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는 2011년 분양 당시 평균 62.9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짓는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

'힐스테이트 판교' 계약 4일 만에 완판 신도시 호수 주변 아파트 인기 상승



힐스테이트 판교.

지의 '킨텍스 원시티'는 해당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순위 청약자 1만 명이 몰릴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역시 완판에 성공했다.

한류월드 일대가 일산신도시 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개발부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남측에 한강, 우측에 일산 호수공원 등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호수 조망권은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판교호수공원과 1km여 거리에 위치한 단지의 전용 84㎡ 매매가는 6억9500

만 원에 형성됐지만 호수와 3.5km 떨어진 아파트 매매가는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역세권만큼의 인기를 누리는 호수공원 인근의 분양은 이밖에도 이어진다. 반도건설로 동탄2신도시 A80블록에 총 1241가구 규모의 '동탄2신도시 반도유료라 아이비파크 10.0'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에서부터 약 6.1km에 이르는 호수공원 산책로를 누릴 수 있다. GS건설 역시 같은 달 483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친일장례인가? 민족장례인가?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삶이 척박했던 노비들이 입던 가장 거친 삼베옷이 우리민족의 전통수의를 양 행세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노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례준칙>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민족의 전통을 노비문화로 격하시키려 한 일제강점기의 간교한 문화정책에 속아온 때문입니다.

고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비단옷을 입혀드리고 유족들이 거친 삼베옷을 입던 우리의 문화는 조선의 전례서인 <국조오례의>에 명문화된 이래 면면히 이어져왔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사촌이 모두 모여 슬픔을 함께 하던 전통은 긴긴 세월 이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례 전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노비나 천민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양반으로 대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친일장례로 치르시겠습니까, 민족장례로 모시겠습니까?

본 작품과 이를 이용한 상조서비스는 단국대학교와 한국문화개발진흥(주)이 공동개발한 것으로, 저작권법·특허법 등 지식재산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 권리자의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작품을 사용하거나 상조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자 |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개발진흥(주) • 디자인 및 제조원 | 단국대학교전통복식연구소(주)단국상의원/한국문화개발진흥(주) • 판매원 | 궁중문화상조(주)

문의: 02)512-4472 | www.gjcmi.com  궁중문화상조(주) **지사 및 지사장 모집**



뜨겁다! 더위 안 타는 분양 열기

2분기 마감으로 치달으면서 분양시장은 한여름 열기보다 더 뜨겁다. 그야말로 분양대전(大戰)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6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물량 폭탄이 쏟아진다.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전달보다 42% 늘어난 4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서울에서는 전달보다 175% 폭증한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경기지역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물량이 집중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1군 브랜드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10대 건설사들이 내놓는 물량은 2만33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한 물량(4321가구)보다 무려 5배 많다. 현재 전국 분양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입지와 분양가 등의 조건에 따라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몰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1.25%의 초저금리 시대 진입이 내집 마련 수요를 자극해 분양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

실수요자 관심 높은 중소형 구성... 틈새면적 제공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 A42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1479가구를 분양하며 동탄2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전용면적 61~84㎡ 총 1479가구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 △61㎡ 150가구 △74㎡ 288가구 △84㎡ 1041가구로 이뤄진다. 단지 전체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고 61㎡·74㎡와 같은 틈새면적도 제공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동탄2신도시의 지리적인 중심에 해당하는 리베라C.C 남쪽에 있어 교통·교육·생활·자연환경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단지와 인접해 초등학교 1개소가 예정돼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내에는 유치원도 만들어진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동탄 단지 내에 카셰어링 서비스도 적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에 카셰어링 공간을 갖추고 입주 고객이 멀리서 차량을 빌리지 않아도 편하게 단지 내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다양한 계열사들과 연계해 최상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에 마련되며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대우건설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

성성지구 '천안의 신주거지' 떠올라... 산단도 인접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공급하는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130-4 일대에 조성되는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13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62㎡ 226가구 △74㎡ 136가구 △84㎡ 1234가구 △99㎡ 134가구로 총 1730가구로 구성된다. 선호도 높은 85㎡ 이하 가구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성성지구는 전체 8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천안시 북부권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천안의 신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대로를 이용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탕정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특히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 A2블록은 성성지구 중심상업시설 및 두정동 상업시설과 가까운데다 천안시 북부를 가로지르는 삼성대로에 인접해 성성지구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KTX 천안아산역을 이용해 서울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이 인접하고



천안버스터미널, 천안IC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 성성3지구 A1블록에 공급된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995가구와 함께 총 2725가구의 매머드급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80만원이다. 입주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포스코건설 평택 소사벌 더샵

어린이집·놀이터 등 2km에 달하는 산책로 조성

포스코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 C1블록에서 '소사벌 더샵'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 최고 25층, 9개동, 전용면적 89~112㎡, 총 817가구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는 89㎡A 409가구, 89㎡B 95가구, 99㎡A 182가구, 99㎡B 68가구, 112㎡ 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가구 수를 보유한 전용 89㎡A는 주방용 대규모 팬트리로 선택할 수 있는 알파룸이 제공되며, 전용 89㎡B는 넉넉한 다용도실 및 기본 팬트리, 그리고 와이드 드레스룸이 마련된다. 전용 99㎡A는 2개의 알파룸이 제공되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전용 99㎡B는 자녀 공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룸인룸 구조가 적용됐다. 전용 112㎡는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과 알파룸을 더해졌다.

단지 중앙에는 국제축구장 규격 이상의 넓은 광장인 더샵 필드가 자리잡으며 어린이집, 물놀이장, 놀이터, 맘스카페, 팝가든 등을 비롯해 2km에 달하는 순환형 산책로가 꾸며진다. 단지가 위치한 소사벌지구는 공공택지로 토지 준공한 완성형 택지지구인 만큼 입주와 동시에 생활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배다리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소사벌 상업지구와 인접하며 평택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공원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3-2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우미건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

31층 조망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도보 거리

우미건설은 6월 말 후평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인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4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1층,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77.84㎡ 941가구 예정이다. 이 아파트가 위치하는 후평동은 도시재생사업지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후평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1792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지난해 후평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주공 1-3단지 일대가 5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최고 31층의 초고층 설계로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했다.

단지 내에는 춘천시 최초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이 들어서며 게스트하우스, 카페 Lynn, 휘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부안중, 후평중, 강원사대고 등 도보권 내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며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등도 가깝다. 또한 강원대학병원,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으로는 춘천IC(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5번 국도를 통해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며 다양한 대중교통으로 춘천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춘천시 운의동 228-12번지(춘천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9년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롯데건설 용인 신동백롯데캐슬 에코

야외골프장·수영장 갖춰... 분당까지 차로 10분대

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중동 650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를 분양 중이다.

'신동백롯데캐슬 에코'는 지하 3층, 지상 17~40층, 26개동으로 모두 2770가구다. 두 개 블록으로 나뉘져 1블록에는 17개동 1902가구, 2블록은 9개동에 868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가구수는 △84㎡ 1277가구 △99㎡ 601가구 △106㎡ 299가구 △112㎡ 126가구 △113㎡ 116가구 △129㎡ 200가구 △134㎡ 99가구 △151㎡ 13가구 △157㎡ 27가구 △175㎡ 2가구 △185㎡ 2가구 △199㎡ 8가구 등이다.

이번 단지는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야외골프장과 수영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조성되는 소규모 실내 골프연습장과 다른 30~50m 규모의 6홀 미니형 파3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6m에 달하는 18개 타석 연습장과 20m 푼퍼팅그린, 스크린골프, 피칭를 갖춘 대규모 실내골프연습장도 있다. 25m 길이의 4개 레인을 갖춘 실내수영장도 특징이다.

교통도 편리하다. 분당-동백 간 도로가 가까워 분당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용인 경전철 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이 개통해 서울 접근성은 더 좋아졌다. 단지 주변에 초, 중교가 각각 1개씩 신설돼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현재 마감된 면적을 제외한 일부 가구를 분양 중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부영주택 마산 월영 사랑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빌트인 가전 무상 제공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선보이는 총 4298가구의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함께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20%에서 10%로 인하해 공급한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최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관심 고객이 급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마산월영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주택형별로 약 1100만~1700만원 대까지(원 3.88% 기준) 예상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택구입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행주도마살균기, 디지털도어록, 음식물 탈수기, 전동 빨래 건조대, 비데일체형 고급변기, 전기오븐 등의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해 계약자들의 추가 부담을 낮췄다.

대규모 단지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 총 4298가구다. 분양가격은 84㎡ 3억3500만원, 124㎡ 4억5200만원, 149㎡ 5억2400만원이다.

선택옵션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가변형 벽체(124㎡, 149㎡ 한정)를 계약할 수 있다. 입주예정 시기는 2018년 8월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GS건설 답십리 파크자이

동대문구에 첫번째 '자이' 브랜드 전용 49㎡ 초소형 면적 눈에 띄네

서울 동대문구에도 드디어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이 동대문구에 있는 첫 번째 자이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답십리파크자이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원 답십리4구역에 재개발한 단지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0층, 9개동 총 802가구며 35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별로 49㎡ 109가구, 59㎡ 145가구, 84㎡ 97가구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싱글족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초소형 평면 49㎡도 선보여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답십리파크자이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 이용 시 종로3가까지 15분, 여의도까지 35분 내에 환승 없이 도달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답십리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송인중, 동대문중, 전일중, 전농중, 전동중, 장평중, 휘경중, 동대부남중, 휘경여중, 청랑고, 해성여고, 동대부남고, 휘경여고, 경희남고, 경희여고, 대광남고등학교 등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GS건설은 현재 견본주택 오픈 전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답십리역 5번 출구 앞에서 답십리파크자이 분양홍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473-1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대림산업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7호선 상도역 걸어서 5분 초역세권 여의도·용산·강남 출퇴근하기 편리

대림산업이 지난 10일,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이 아파트는 여의도·용산·강남 등 주요 중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한 알짜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 총 893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중 4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9~108㎡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87가구 △84㎡ 319가구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구청, 학동 등 강남의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강남초등학교, 영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노랑진 학원가도 1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의 발을 예정이다. 당첨자는 22일 발표되며 계약은 모델하우스에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모델하우스는 현장 인근(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3번 출구와 가깝다. 입주는 2018년 12월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현대산업개발 DMC2차 아이파크

단지 반경 1km 이내에 학교가 12개 실내수영장·어린이집 명품 커뮤니티

현대산업개발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 일원 남가좌1구역에 재건축하는 'DMC2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DMC2차 아이파크'는 지하 5층~지상 22층 13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127㎡ 총 1061가구 중 5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가좌동은 가재울뉴타운이 위치한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단지가 입주하는 2018년 10월이면 가재울 뉴타운 대부분의 개발이 완료돼 인프라 시설 이용이 수월할 전망이다.

단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에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실개천, 중앙 커뮤니티광장, 조경체험공간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다. 연가초와 연희중이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충암초고, 가재울초·중·고 등 1km 이내에 12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내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강변북로, 성산대교의 진입이 쉽다. 서부경전철 명지대역이 2024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2020년 각각 개발 예정돼 있다. 인근에는 삼양힐플러스월드점, 신촌현대백화점 등이 있으며 삼양 롯데백화점도 들어설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명지대학교 야외음악당 근처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5-7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18년 10월이다. 정경진 기자 jungji@



삼성물산 래미안 장위

교통·자연·주거 3박자... 장위뉴타운 1.5구역 1365가구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구역과 5구역에서 '래미안 장위(가칭)' 2500여 가구 중 13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장위1구역은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 59~101㎡로 총 939가구 규모다. 이 중 49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1·

6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운초, 남대문중 등이 인접한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73-114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장위5구역에는 지하2층~지상 32층, 16개동, 전용 59~116㎡ 총 156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 중 8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두 단지는 인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쉬워 주요 도심권 및 강남권 이동이 수월하다.

장위뉴타운은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돼 공공시설은 물론 녹지, 공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춘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장위'는 현재 사전홍보관 웰컴라운지를 미아점과 장위점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웰컴라운지 미아점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 출구 롯데백화점 옆(서울 강북구 도봉로 52) 와이스퀘어 10층에 위치하며, 장위점은 사립지 인근 북서울꿈의숲 동문삼거리(서울시 성북구 월계로 172) 소산빌딩 6층에 있다.

SK건설 휘경 SK VIEW

지하철 1호선·동부간선로 바로 옆 900가구, 이문·휘경뉴타운 스타트

SK건설은 '휘경 SK VIEW(휘경 SK뷰)'를 분양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대 분양하는 '휘경 SK VIEW(뷰)'는 이문·휘경뉴타운의 첫 번째 분양 물량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8개동 규모이며, 총 900가구로 구성된다. 그중 전용면적 기준 △59㎡ 44가구 △84㎡ 273가구 △95㎡ 27가구 △100㎡ 25가구 등 총 369가구가 일반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1호선 외대앞역을 도보로 닿을 수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해 서울 주요지역은 물론 구리와 하남 등 동부권 외곽지역까지 접근성이 좋다. 동부간선도로 진출로와 인접해 강남 등 서울 도심권과도 빠르게 닿을 수 있다. 단지 인근 롯데백화점, 이마트(이문점), 홈플러스(변목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하다.

또한 단지 동쪽으로 중랑천과 인접해 있으며, 남측에 위치한 배봉산 공원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 교통과 생활, 자연 등 단지 지척에 모든 걸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국외대, 경희대 등 명문대 및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연구시설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삼육초, 경희초가 가깝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18-10번지로 사업지 내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10만 원대이며,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정경진 기자 jungji@

한화건설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오피스텔' 1969가구 대단지 여수의 신도심 웅천지구 랜드마크로

한화건설은 오는 6월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 3단지 C4-2, 3블록에 총 1969가구 대단지, '여수 웅천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75㎡ 487가구 △84㎡ 855가구 △100㎡ 384가구 △110㎡ 52가구 △130~134㎡ 3가구(펜트하우스)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8~65㎡ 38실 △84㎡ 150실로 일부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된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여수의 신도심으로 떠오른 웅천지구에 4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이자 여수에서 보기 드문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다.

탁월한 교통망도 자랑할 만하다.

KTX여수엑스포역, 여천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수-광양을 10분 내로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 등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부지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전망이다. 또한 중심상업지구도 가깝고 단지 인근에 장고형 활인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여수 웅천 꿈에그린의 분양홍보관을 여수 문수동 805-14에 오픈해 사전 분양상담을 진행 중이다. 6월 말 웅천지구 사업지 인근에 견본주택을 오픈할 계획이다.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호반건설 시흥 은계 호반 씨밋플레이스

은계지구 첫 대규모 복합주거단지 단지 옆에 상업지구 '원스톱 라이프'

호반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북-1블록)의 시흥 은계 호반 씨밋플레이스를 분양하고 있다.

시흥 은계 호반 씨밋플레이스는 시흥 은계 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대규모 복합주거 단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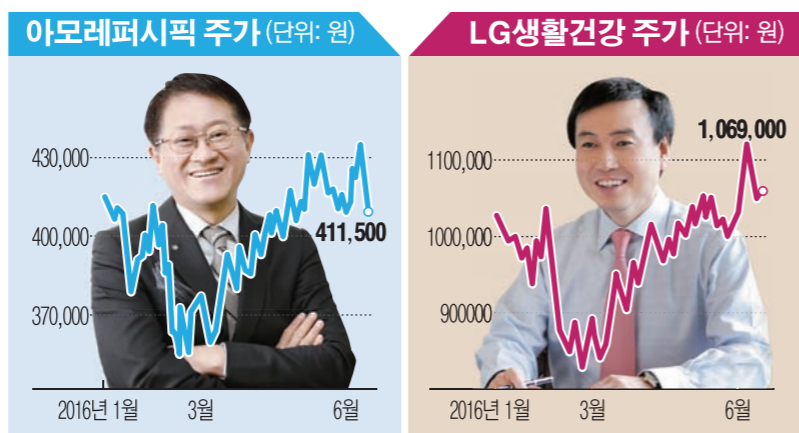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6개동, 1133가구(오피스텔 317실 포함)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오피스텔은 전용 35㎡로 317실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A 222가구 △84㎡B 94가구 △101㎡A 336가구 △101㎡B 97가구 △119㎡ 67가구다.

단지 옆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 학교 개교 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중학교 등 2개의 학교 부지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구 예정돼 있어 편의성이 기대된다.

시흥 은계 호반 씨밋플레이스 아파트 1~2층은 필로티로 구성되고 상업시설 출입구는 아파트와 구분돼 외부에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동호회실 등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풀퍼니시드로 꾸며져 세탁기, 쿡탑,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을 갖췄다. 특히 아파트처럼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시흥 은계 호반 씨밋플레이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406번지(KTX광명역 8번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고, 입주는 2019년 5월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ji@



‘V라인’ 그린 화장품株 앞서가는 서경배 바짝쫓는 차석용



연초 중증시쇼크 이후 반등
아모레퍼시픽 4개월새 19%↑
LG생전 30% 상승폭 더 커
1분기 매출차 3000억 불과
하반기 경쟁 더 치열해질듯

국내 1, 2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가 고공행진 속에서 점차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벌이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경쟁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들어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초 중국증시 쇼크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하는 ‘V’자 패턴이 뚜렷하다. 라이벌 기업의 주가가 점점 ‘닭은꿨이 돼 가는 모습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 기업 간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점이었던 2월 17일을 기점으로 두 회사 모두가 파란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LG생활건강 쪽이 더 크다. 2월 17일 34만6500원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은

현재(6월 14일 종가) 41만3500원으로 4개월간 19.19% 상승했다. LG생활건강은 같은 기간 81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30.8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회사는 나란히 분기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올해 1분기에도 ‘박방’의 승부를 펼쳤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4191억 원, 매출 1조759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7%, 21.8%씩 증가한 수치다. LG생활건강은 올 1분기 영업이익 2335억 원, 매출 1조5194억 원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9%, 16.7% 늘었다. 지난해에도 각각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두 회사의 매출 격차는 약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올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 6조 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증권사가 예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액 6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영업이익률은 17%가량이다. LG생활건강의 실적전망치는 약 6조2000억 원, 영업이익 8700억 원, 영업이익률은 14%가량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1위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두 경영인의 경쟁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새 주인 맞는 리딩투자證 15년만에 무상감자 추진 “액면가 낮춰 결손금 정리”

리딩투자증권이 재무구조 개선 일환으로 무상 감자를 추진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1대 0.7의 무상감자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 임시 주총은 오는 24일 열린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리딩투자증권이 무상 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1년 12월 이후 15년 만이다. 감자 이후 자본금은 기존 526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한 주당 액면가액도 예초 500원에서 350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무상 감자에 대한 구주권 제출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감자 배경은 결손금을 털어내는 한편, 기존 너무 높았던 액면가를 낮추고 재무제표를 깨끗이 만들고자 단행하는 것”이라며 “결손금이 많은 회사는 투자 직전 통상 무상감자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상감자 배경에 대해 새 주인을 맞이하기 직전 체질개선 차원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동안 번번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된 리딩투자증권은 지난 4월 김충호 부사장이 주도한 CK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대주주적격 심사를 위한 승인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한 상태다. 김경아 기자 kakim@

‘매각무산’ 제일기획, 주가는 오히려 반등 왜?

매각 무산 소식에 제일기획의 주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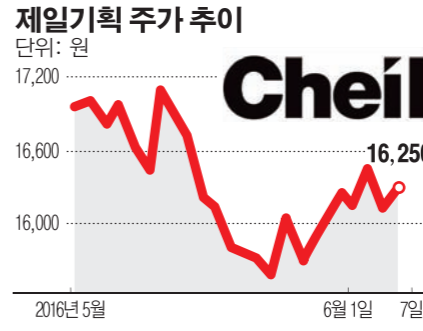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전날보다 3.10% 상승한 1만6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2만 원대까지 상승한 제일기획은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주가는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뒀음에도 전날까지 연중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상태였다.

그러나 제일기획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던 프랑스 광고회사 퍼블리시스와의 협상 결렬 사실은 물론 중국 광고회사사의 매각 재추진설까지 일축하면서 주가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제일기획은 전날 장 마감 후 “글로벌 에이전시들과 다각적 협력 방안 논의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결렬됐다”고 공시해 해외 매각이 무산됐음을 밝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매각 무산이 구제화

최근 연중 최고점 대비 30% 하락
퍼블리시스와 협상결렬 소식후
하루만에 3% 넘게 오르며 기대감

“불확실성 해소…실적전망도 밝아”



되면서 그간 제일기획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고, 유사 종목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해소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지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에 따르면 인수합병

(M&A) 관련 공시는 3개월 이내 반복하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며 “제일기획은 최소한 3개월 동안은 매각 작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이끌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일기획의 실적 컨센서스(시장 추정치)는 매출액 7961억 원, 영업이익 442억 원으로 집계돼 직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광고시장 상황과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한 갤럭시S7 판매량에 힘입은 삼성전자의 마케팅비 집행 증가가 제일기획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더해 오는 3분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4분기 광고 성수기를 고려하면, 매각 이슈로 하락한 주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中로스웰 “한국기업과 협력 위해 코스닥 상장 결심”

車전장 전문·현직 고객사 다수 확보
작년 매출 954억·순익 177억 달해
총 3000만주 공모 최대 960억 조달



“상장 이후 한국의 증권시장 규율을 충실히 따르고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차이나 프리미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국 기업 로스웰인더내셔널(이하 로스웰)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동차 하이드로 전장 산업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로스웰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전략과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날 저우상동(사진) 대표는 “해외 자동차 산업은 100년 이상의 역사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이 많아 협력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코스닥 상장을 결정했다”며 코스닥 상장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설립된 로스웰은 중국의 강소 로스웰전기유한회사를 자회사로 둔 홍콩 소재 지주회사다. 자동차 전자제품에 필수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장 제품과 차량용 공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AN 시스템은 자동차의 두뇌와 같은 장

치로, 차체 내 모든 모듈과 장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직렬 통신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품이다. 현재 북경포톤(Foton)을 포함해 벤츠-디이머, 이치자동차, 동평상용차 등 중국 상용차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또 로스웰은 이미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의 개발에 성공, 중국 내 대형 전기버스 완성차 업체인 중등버스, 포톤, 체리, 아시아스타 등과 납품 의향협의를 체결했다. 올 초 전기차 배터리팩 생산라인을 추가로 증설했다.

지난해 로스웰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954억6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율도 10%를 웃돌아 각각 224억9000만 원, 177억4000만 원을 기록했다.

로스웰의 공모주식수는 총 3000만 주다. 희망 공모밴드는 2100~3200원으로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630억~960억 원을 조달한다. 오는 17일과 20일 양일간 일반인 대상 공모 청약은 진행, 30일 상장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권태성 기자 tskwon@

비밀독서단 시즌2

현대교양백서 특별주제도서

2015년 국내 저자 1위, 채사장의

《시민의 교양》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오늘의 책

2016년 1월
중앙일보
이달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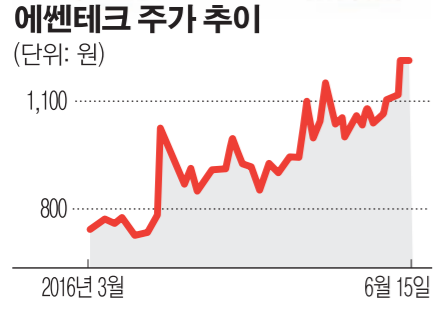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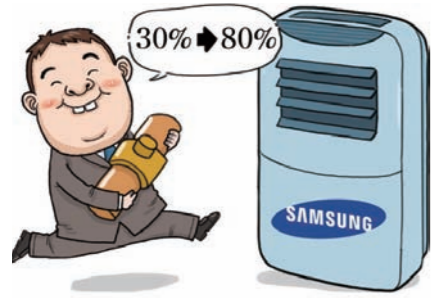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북모닝 CEO
선정도서

채사장 지음 | 348쪽 | 15,000원 | 2015년 12월 whale books



에센테크, 삼성전자에 에어컨 밸브 공급 늘린다



계약초기 전량납품 했지만 2-3년전부터 30%로 비중 줄여 올해부터 경쟁사 제치고 총물량 80% 주문받아 수혜 기대

회동소재 부품업체인 에센테크가 삼성전자에서 필요로 하는 에어컨 서비스 밸브 물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에센테크가 생산하는 서비스 밸브 전량을 국내 삼성전자에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삼성 에어컨 판매 증가에 따라 에센테크의 수주량 증가도 기대된다. 14일 에센테크는 올해 삼성전자 에어컨 서비스 밸브 총물량의 80%를 주문받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센테크가 공급한 삼성전자용 서비스 밸브는 총물량의 30% 수준이었으나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에어컨 판매 확대와 함께 에센테크가 독점적 지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에어컨 서비스 밸브 80% 공급은 이미 무풍 에어컨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확정됐던 사항"이라며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물량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센테크는 삼성전자와 에어컨용 냉동 불밸브와 서비스밸브를 공동 개발해, 무풍에어컨을 비롯해 일반 에어컨에도 납품하고 있다. 에센테크는 계약 초기에 삼성전자에 독점 납품했지만, 2-3년 전부터는 이원화돼 부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서비스 밸브의 경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만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다국적 밸브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Q9500'이 출시 4개월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에 1대, 하루 평균 8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전년 동기 프리미엄 에어컨 판매량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전자 측은

폴러드는 주문량을 맞추고자 전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센테크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에어컨 생산량이 늘어나면 에센테크의 부품 생산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예상량 주문을 받은 것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 생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센테크는 동 및 통합금으로 제조하는 금속가공업체로 주택, 전자, 전기, 산업기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각종 밸브와 정밀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냉동공용 냉동불밸브·서비스 밸브의 국산화 개발을 성공,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에센테크는 삼성전자와 에어컨용 냉동 불밸브와 서비스밸브를 공동 개발해, 무풍에어컨을 비롯해 일반 에어컨에도 납품하고 있다. 에센테크는 계약 초기에 삼성전자에 독점 납품했지만, 2-3년 전부터는 이원화돼 부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서비스 밸브의 경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만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다국적 밸브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Q9500'이 출시 4개월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에 1대, 하루 평균 8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전년 동기 프리미엄 에어컨 판매량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전자 측은

공모가 밴드 대박난 에스티팜 최대 수혜자는 강정석 부회장

희망가 초과 2만9000원 확정 강 부회장, 1764억 규모 보유 "지분 활용 그룹 지배력 강화"



비버를 책정할 수 있게 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장 규모 확대 등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에스티팜의 상장으로 대박이 예상된다. 강 부회장은 현재 에스티팜 지분 43.47%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 이후 강 부회장의 지분율은 32.6%로 낮아진다. 강 부회장 보유 지분은 공모가 기준 1764억 원 규모다. 그룹 지배력이 취약한 강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에스티팜의 지분 활용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에스티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기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강정석(사진) 동아쏘시오그룹 부회장의 대박이 예상된다. 공모가 기준 상장 시 강 부회장의 주식 규모는 1764억 원에 달한다. 이에 그룹 지주사 홀딩스의 지배력이 약한 강 부회장이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에스티팜은 지난 9-10일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가 2만9000원으로 확정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기관수요 예측에서는 955건, 20억761만3000주의 신청수량이 접수돼 단순 수요예측 경쟁률이 717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로 결정된 2만9000원 미만에서 신청한 건수는 24개 기관에 불과했다. 공모가는 희망가 2만4000-2만7000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에스티팜은 15-16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거쳐 오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에스티팜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352억 원을 조달하게 되며 공모자금으로 시설투자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특히 2018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신축하는 신규 합성공정 설립과 관련해 공모가 흥행으로 200억 원의 예

비버를 책정할 수 있게 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장 규모 확대 등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에스티팜의 상장으로 대박이 예상된다. 강 부회장은 현재 에스티팜 지분 43.47%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 이후 강 부회장의 지분율은 32.6%로 낮아진다. 강 부회장 보유 지분은 공모가 기준 1764억 원 규모다. 그룹 지배력이 취약한 강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에스티팜의 지분 활용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13.52%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강 부회장은 11.76% 보유에 그친다. 더군다나 에스티팜은 강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그룹 지배구조와 무관해 활용도가 자유롭다. 아울러 에스티팜이 상장하면 10월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에스티팜의 지분을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에 에스티팜은 회사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현물 출자하고 기존 주요주주에게 홀딩스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 스와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레드로버, 521억 규모 유상증자

총 860만주 발행... "시각특수·가상현실 기술 등 투자 계획"

글로벌 콘텐츠 기업 레드로버는 신규 사업투자 진행을 위해 약 521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다. 총발행주식수는 860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25%를 차지한다.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시각특수 효과(VFX) 스튜디오 투자·인수, 가상현실(VR) 기술투자와 콘텐츠 개발,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 시스템 설비 투자(렌더링 장비 구축) 등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수년 그룹은 지난 3월 레드로버와 함께 진행한 대규모 기업설명회에서 향후 제작할 다수의 실사 영화 프로젝트의 CGI·VFX 부분을 레드로버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레드로버는 국내외 VFX 스튜디오의 투자·인수 합병 추진을 준비해 왔다.

현재 레드로버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국내외 VFX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중국 영화뿐 아니라 글로벌 영화 프로젝트의 수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레드로버는 조달 자금의 상당부분을 VR 사업에 투자해 사업 확대와 시장 선점에도 나설 예정이다. 레드로버가 개발 중인 4D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VR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VR 시스템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개념 VR 테마파크의 사업화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레드로버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는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시종 기자 ssi@

공시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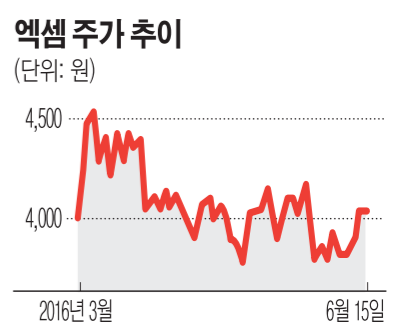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뉴프라이드 파산신청

뉴프라이드의 파산신청은 개인 간 거래내 전환사채(CB) 거래 분쟁에 따른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뉴프라이드는 14일 공시를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0일 김모씨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 하루만인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인의 취회에 따라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뉴프라이드는 지난해 5월 약 3억 원 규모의 제3회차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개인투자자인 A모씨가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또 다른 B모씨에게 양도한 것. 이에 B모씨가 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회사 측에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초 전환사채를 발행

신청자, 접수 하루만에 취하 "CB 원채권자와 소유권 분쟁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무관"

받은 A씨가 B씨로부터 전환사채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식전환을 해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전환을 거부하자 B모씨가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3회차 전환사채 중 3억 원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전환권 청구가 들어왔으나 원채권자는 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전환청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며 "회사는 원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전환청구를 받지 않아 신청인으로부터 파산신청서접수증명원을 수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 간 CB 소유권 분쟁에 따른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회사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프라이드는 지난해 11월 중국 허난성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와 손잡고 중원북탑 1층에 조성된 1200평 규모의 한류 보세면세점을 오픈하는 등 중국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허난성 유일의 흡소핑 체널인 '환등구물'까지 진출해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성시종 기자 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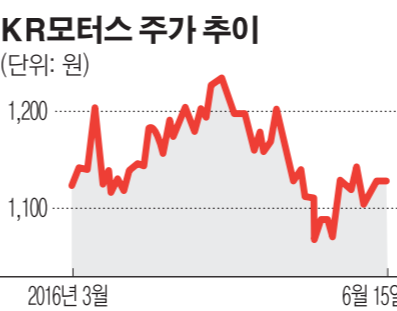
엑셀, 자회사 흡수합병 "기존 빅데이터 시너지 클라우드 사업도 강화"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엑셀은 자회사 클라우드인을 흡수합병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병을 통해 △엑셀 중심의 빅데이터 사업 기반 강화 △경영 효율성 증대 △인력의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을 꾀할 계획이다. 엑셀과 클라우드인의 합병 비율은 1대 12.2055850이다. 합병 후 클라우드인은 소멸한다. 엑셀과 클라우드인의 합병은 어느 정도 예정된 바 있다. 엑셀은 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사업 육성을 본격화하며, 두 회사 모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운영 △데이터닝과 머신러닝 연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클라우드인의 지분 51%를 인수한 데 이어, 클라우드인의 김병근 대표를 엑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업 총괄자로 선임하며 합병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번 흡수합병은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빅데이터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한곳으로 모아 시너지를 끌어올리는 경영 효율화 조치다. 클라우드인은 국내 유수의 빅데이터 전문업체가 포진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플랫폼 플라자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장잠재력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엑셀과 클라우드인은 최근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업 등의 정부과제에서 지식플랫폼 설계 및 최적화 부분의 수행을 맡게 되면서 빅데이터 처리, 분석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남호 엑셀 대표는 "투자한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대거 확보됨에 따라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구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달 오픈한 양재 빅데이터 센터와 오는 27일 오픈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개발의 중심인 포스텍R&D센터는 엑셀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시킬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강서본사는 기존 사업과 클라우드 SaaS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KR모터스, 우정사업본부에 오토바이 납품

KR모터스는 지난 2월 선보인 신제품 DD 110시리즈가 우정사업본부 이륜차 납품 업체로 선정되며 7월 말까지 1231대를 납품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량 납품 성공은 실적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DD 110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가격 경쟁력과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D 110은 출시 이후 약 3개월 만에 3300여 대에 달하는 높은 판매고를 달성했다. 동일 기종 구 모델인 에스코트(Escort)의 연간 판매량 2000여 대를 불과 3개월 만에 가뿐히 뛰어넘은 수치다. 회사 측은 기존 경쟁사에서 주로 점유하고 있는 언더본 시장에 KR모터스가 새로운 카테고리 킬러(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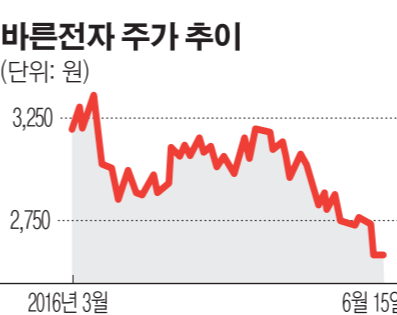
Killer)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KR모터스는 100cc 모델 DD 100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특화용으로 지난 4월 출시한 '델리로드(Deliroad) 100' 역시 6월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어 KR모터스의 매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모델 'DD 110' 1231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한국이륜차산업협회(KOMIA) 자료에 따르면 KR모터스의 지난달까지 누적 시장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5월 한 달은 약 4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경쟁사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성장하거나 한 자릿수대의 성장률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호실적이다. KR모터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신모델들이 계속해서 실적에 돌고 있다"며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대량 납품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올해 2분기에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바른전자, 뽀로로 스마트밴드에 모듈 공급

종합반도체 전문기업 바른전자는 소셜네트워크와 다산네트워크의 자회사인 다산카이스의 미야방지용 '뽀로로 스마트밴드'에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모듈을 생산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뽀로로 스마트밴드는 안드로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동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다. 밴드에는 블루투스 및 GPS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아이 위치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아이가 보호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

다산카이스 미야방지용 제품 블루투스·GPS 등 기능 포함

바른전자는 뽀로로 스마트밴드에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을 공급해 부모들이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실명된 바른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초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을 생산해 이번에는 스타트업 소셜네트워크와 다산네트워크의 자회사인 다산카이스가 개발한 미야 방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10년 연속 세계판매 **1**위
2006년~2015년 IHS Technology 기준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세계 TV 시장의 압도적 1위 (2006년~2015년)

SAMSUNG

보이지 않았던 움직임
숨어있던 땀방울까지

전세계인의 축제, 퀀텀닷 초밀도 화질로 즐겨라

SUHD TV

Quantum dot display

삼성 퀀텀닷 디스플레이란?

정확한 자연색 표현과 오랫동안 변치 않는 내구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델명: UN65K5600F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삼성전자 **S'골드러시**
TV 보상판매 특별전

(2016년 6월 15일 ~ 2016년 8월 21일)

[삼성 TV 보상판매] 138cm 이상 16년 SUHD/UHD TV 구매 후 구형 TV 반납 시 추가 최대 30만원 상당 보상 혜택
 [대화면 4K 스페셜] 70/65/60KU6300 구매 시 59,000원 추가하면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EO-PN920) 제공

• LCD / PDP / LED TV 반납 시 30만원 보상 혜택 • 브라운관 TV 반납 시 20만원 보상 혜택 • TV 모니터 제외 • 브랜드 / 제조년월 / 사이즈 무관 행사모델 배송 / 설치 시점에 구형 TV 반납조건 (설치완료 • 로지텍 화수정보 필수조건)
 • 보상 혜택은 포인트 지급 또는 캐시백 한정할인 등으로 경로에 따라 상이함 • 보상 혜택 제공: ~8월 21일 판매, ~8월 31일 배송조건 • 본 행사는 행사기간 내 해당모델 구매 시 한하며, 행사 참여자에 따라 행사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com/sec 참고